朝鮮日報
夕刊 六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決裂氣分濃厚裡 今日軍縮會議再開

期待의 休會中工作도 不如意

佛代表部新提案?

【倫敦四日發同盟】休會後의 海軍會議는 드되어 六日午後三時十五分(日本時間七日午前零時十五分)크라렌스하우스會議場에서 再開키로 決定하야 永野、永井兩全權、데비스氏及 필립스國務次官以下 日本、米國全權團은 續續倫敦에 歸還하고 佛伊兩國代表部도 五日 各各 本國으로부터 倫敦에來着할터이다 日本政府의 共通最大限設置案、英國政府의 建艦宣言案을 兩極으로 各國代表의 主張은 너무도 甚하엿기때문에 休會中에 期待된 個別會商도 全然 行하지안코 對立된채로 再開會議에 臨할터이다 六日의 會議에서는 劈頭에 호어前外相의 辭任에 依한 後任議長을 選任後 量的制限에 關한 英國案의 討議에 들어갈터인데 佛伊兩國 代表는 休會中에 十分 本國政府와 會議하야 英國案에 對한 兩國代表의 意見開陳이 잇슬것으로 期待되는 바 特히 佛國代表는 獨自의制限樣式으로 質的制限과 建艦計畫相互通告에 關한 相當히 廣範圍의 提案을 할것으로 解釋되는데 各國代表의 主張에 徹하야 會議는 實質的으로 意外로 빨리 破局에臨할것으로 觀測되어 이든外相은 海軍會議도 모르는체 卄日 쥬네브로 向發하야 聯盟理事會에 臨하기로되어잇서서 會議의 前途는悲觀的空氣에 싸엿다

【倫敦四日發同盟】佛國全權안드레·코방氏及 同軍令部長주루랑中將은 再開海軍會議에서 建艦通告에 關한 佛國政府獨自의 提案을 할것으로 解釋되다 日本英國兩案對立停頓狀態에잇는 海軍會議에 如何한 程度의 緩和劑를 提供할는지 極히 重視되는바 仄聞하건대 佛國代表部의 提案은

一、各國代表는 그建艦計畫內容을 全的으로 또는 相互間에 通告할것

一、建艦計畫은 各國이 모다 全혀 自主的으로하고 따라서 通告以外의 建艦 그것에 關해서는 質的으로나 量的으로나 何等 條件制限等을 附하지안흘것

이라는데 잇다 그래서 日英兩國案보다도 더 無制限하야 오히려 無軌道案이라고 할만한데 結局 各國代表의 一齊反對로 卽時 葬去될것으로 보인다

(寫眞은 永野、데비스、모셀 三國全權)

濠洲聯邦政府 日本人入國禁止

【멜본르四日發聯合】濠洲聯邦內相 바러슨氏는 四日 上陸許可를 엇는 日本人의 一團이 노스크론스란드海岸에 上陸하야 白人에게 暴行을 加하엿다는 情報에 接하고 卽時 右日本人에게 對하야 入國禁止命令을 發하엿다 濠洲政府에서는 不法入國移民을 取締하기爲하야 目下 沿岸警備艇二隻을 建造中인바 此種事件의 頻發에 鑑하여 또 日本政府에 對하야 取締를 要求할것으로 보인다

米大統領敎書에 獨政府官邊反感

【伯林四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의 議會敎書는 四日의 伯林夕刊紙上에 一齊히 揭載되엇는데 獨逸政府官邊에서는 大統領의 敎書內容에 對하야 好感을 가지지안코 特히 中立法强調의 結果 獨逸政府의 立場은 더욱 困難을 加할것이라고 大體 如左한 意向을 가지고잇다고보인다 루즈벨트大統領이 今回의 敎書에서 中立法의 恒久化를 主張하야 事實上 聯盟의 對伊制裁支持의 態度를 取하고잇는데 米國이 聯盟에 顯著히 接近하는 結果 從來 非聯盟國을 理由로 制裁參加를 被拒해온 獨逸政府는 이에 그根據의 하나를 喪失하게되어 今後 國際政局에 處할 獨逸의 立場은 다시 艱難을 極하게될것이다

皇太后陛下 宮城에御參內

【東京電話電通】皇太后陛下께압서는 新春御人事를 御交換하압시기爲하야 五日午後一時四十五分入江皇太后宮大夫以下를 거나리시고 大宮御所御出門 宮城에 御參內 天皇、皇后兩陛下並皇太子殿下義宮殿下와 御對面御人事御交換後 同四時三十分宮城 御出門大宮御所에 還啓하압시엇다

NRA繼續? 루大統領의 敎書

一般의 歡迎氣勢濃厚

【紐育三日發電通】루즈벨트大統領이 三日 議會에 與한 敎書는 發表時刻이 午後九時엿기때문에 아직 월街에는 影響이 업스나 同方面에서는 同敎書의 內容에 關하야 右는 昨春 同大統領이 스크립프스하와드諸紙의 社長 하와드氏에게 與한 書簡에서 N·R·A의 一時中止를 言明한것과 趣旨를 가리하고 또 이것을 繼續하려는 意圖를 示한것이라고 歡迎의 빗을 보이고잇다

飛躍朝鮮日報 新年劈頭三段跳

紙面擴張斷行 購讀料는 一圓그대로

一九三六年의 世界情勢는 『現狀維持에서 現狀打破에』의 一言으로서 說明할수가잇다。보라 歐洲의 風雲은 무엇을말하며 倫敦의會議는 무엇을말하는가。新大陸에서 永世中立의 絕叫가 들니는가하면 舊大陸에는 萬年不安의 騷音이 들니지안는가。朝朝暮暮 轉變無止하는 人類史의 發展은 時時刻刻 奇想天外의 新場面을 展開식히고잇다。이무엇하나가 新聞아닌者잇스며 그무엇하나가 『뉴-스』아닌者잇는가。우리는 報道의 責을 任한者요 公僕의 務를 負한者라。宇內의 大勢와 刻下의現實를 靜察沈究할새 우리도 또한 『現狀維持에서 現狀打破에』의 大飛躍을 斷斷行치아니하면 안될것을 切實히 늣기는바이다。

今日부터 朝夕刊十二面發行

朝鮮日報는 昨年에 創刊十五年과 紙齡五千號와 新社屋落成의 三大慶事를 機會로 十五大事業을 遂行하야 同業界는 말할것도업시 滿天下의 讀書界에 文字그대로 大發展大飛躍을 하엿거니와、이제 輻輳하는 『뉴-스』를 제대로 料理하야 讀者에게 滿足을 드리고 山積하는 廣告를 마음대로 揭載하야 紙面을調整함에는 現在의 朝夕刊十面으로는 그不足을 痛感한지이미오래라。벌서부터 紙面擴張을 꾀하고 그準備를着着進行하여 오든바 今七日附로부터 斷然히 夕刊八面 朝刊四面 合十二面發行을 實施하기로되엿다。이는 오즉 朝鮮日報만의 飛躍이아니오 實로 朝鮮新聞史上의 巨人的偉業이오 爆彈的突進이라、滿天下讀者의愛護가 또한 두터울것을 밋고바라는바이다。

新聞의 紙面을 擴張함에는 第一用紙價와 其他製作費가 增加됨은 勿論이다。더욱이 모든物價의 昂騰으로 紙價도騰勢를 보이는此際에 本社가 紙面擴張을斷行함은 그만한 奉仕的覺悟를 가진까닭이다。다시말하면 從來十面에 購讀料一圓이든 朝鮮日報를 朝夕刊十二面으로 紙面을 느리고도 購讀料는 亦是 一圓으로 提供함은 讀者의負擔을 最小限으로 주리고 本社의犧牲을 最大限으로 바치라하는衷心에서 나온바이다。

高速度輪轉機增設 發行部數의 暴風的激增으로

昨年以來 暴風的으로 激增하는 本報의 發行部數는 어느덧 『朝鮮第一』을 넘어서 이제는 全東洋的으로도 몃재안가는 可驚할 記錄을 뵈이고잇다。本社의 現在發行能力 即機械設備(高速度輪轉機一臺、普通輪轉機二臺)로는 到底히 이趨勢에應키 困難함을 痛感하게되얏다。더욱히 今日로서 朝夕刊十二面으로 紙面을 擴張함에際하야 本社는 斷然코 發行能力의 擴充을 圖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그리하야 本社는 爲先 高速度輪轉機一臺를 增設하고자 萬端의準備를 着着進行中이다。不遠에 新輪轉機가 設置되는날에는 本社의 發行能力은 從來의 設備와合하야 一時間 二十四萬枚라는 놀날만한偉力을 發揮하게될것이다。

廣告料金改定實施 自四月一日每行一圓八十錢

紙面에잇서서 第一着으로 十二面擴張을 決行하고 設備에 잇서서 最新式으로 輪轉機增設을 斷行한 朝鮮日報는 新聞製作으로나 讀者奉仕로나 모든點으로 그에 따르는 經營費의 暴增은 더말할것도업다。一方 本報를利用하는 廣告의 效果는 發行部數의 激增과 正比例로 어재가 데갈가리 增進되고잇스나、本社는 廣告도 文化의一面으로 亦是奉仕의 一念으로서 그料金의 改定實現을 미루어왓다。그러나 今日에至하야는 廣告主도大部分은 이미 이러한事情을 諒解하는터임으로 本社도不得已從來의料金에 五割을引上하야 來四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決定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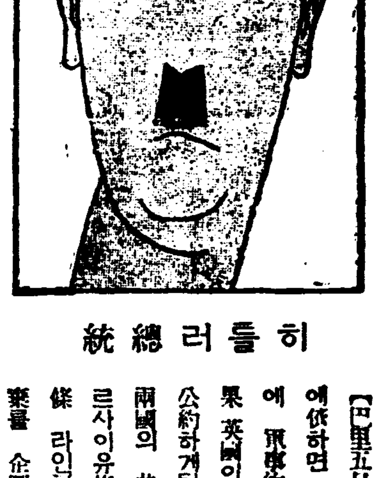
◇改定廣告料金(比從前五割增)

五號活字 十五字一行 金一圓八十錢

朝鮮日報社

非武裝地帶廢止 나치스獨逸意圖

英佛兩國軍事協定成立으로 佛蘭西우블紙報道


히틀러總統

【巴里五日發同盟】五日附우불紙의報道에依하면 獨逸政府는 英佛兩國政府間에 軍事的相互援助協定이 成立된 結果 英國이 佛國에 라인河國境線防衛를 公約하게될 境遇를 考慮하야 右英佛兩國의 共同戰線에 抵抗하야 突然베르사이유條約中第四十二條乃至第四十四條 라인河左岸非武裝地帶의 一方的廢棄를 企圖中이라고 傳하엿다 이結果는 歐洲全土에 亘하야 波及될것이다 라고論하엿다

軍縮會議新議長 이든氏가就任

【倫敦四日發聯合】波瀾이 豫想되든 海軍軍縮會議는 豫定대로來週月曜六日부터 再開되엇든데過般호어外相의 辭職에 伴하야 새로 歸京한 이든氏가 호어氏의 뒤를 니어 軍縮會議議長의 椅子를 占할터인데 慣例에依하야 選擧手續은 밟지안흘터이다

人事·集會

▲今井田政務總監…海雲臺에서靜養中이던바 七日午前七時四十分着歸京

▲池田警務局長 儒城溫泉에서靜養中 六日午後三時二十分歸京

胡氏의中央進出 蔣氏積極的企圖

中央常務委員會主席就任慫慂 諾否如何가極히注目

【上海五日發同盟】蔣介石氏는 胡漢民氏의 歸國을 機로 立法院長孫科氏及 中央政府委員 許崇智氏의 兩氏를 南下케하야 胡漢民氏와 會見한後 中央常務委員會主席就任을 慫慂하기로 決定하엿다 許崇智氏는 八日 프레시덴트·제퍼손號로 또 孫科氏는 十四日 프레시덴트·쿠리지號로 各各 香港에 赴하야 十五日 到着하는 胡漢民氏를 마저 擧國一致를 名目으로 同氏에게 對하야 南京入을 促할터이다 이에 對한 胡漢民氏의 許諾如何는 西南派今後의 消長에 微妙한 影響을 及하는關係上 孫科、許崇智兩氏의 南下는 蔣介石氏의 對西南工作의 第一着手라고 벌서부터 重大視되고잇다

C00061

毒瓦斯彈으로 伊、마칼레空襲

埃及赤十字隊도爆擊

【아디스아베바四日發同盟】에디오피아 政府는 伊太利軍이 마칼레를 爆擊할때에 毒瓦斯를使用한 事實을 指摘하야 如左한 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伊太利空軍은 過去一週間에亘하야 一萬個의 爆彈을 마칼레市外에 投下하엿다 그中에는 毒瓦斯를 使用한것도 數個 包含된 事實이 發見되엇다 이로서 에디오피아側의 損害는 死者十名 負傷者十五名에 達하엿다

【아디스아베바四日發同盟】에디오피아政府는 四日 伊太利軍用機五臺가 다가폴上空에 飛來하야 又復 埃及赤十字隊를 爆擊하야 赤十字隊收容者를 死傷케하엿다는 旨를發表하엿다

伊軍用機繼續爆擊

【아디스아베바五日發同盟】에디오피아政府는 五日 伊太利軍用機數臺가 마칼레南方 암바아라기에 多數의 爆彈을 投下하야 에디오피아側에 死傷三名을 내엇다는 旨를公表하엿다

에國政府의覺書 聯盟事務局公表

【쥬네브四日發電通】聯盟事務局은 에디오피아政府에서 提出한 覺書를 公表하엿다 右覺書는 聯盟에對하야 速히 伊에紛爭事件의 眞相에 關하야 公平한 調査를 行하기를 要請하고 調査를 行하는데 充分資格을 가진이는 十三國委員會이라는것을 指摘하엿는데 右調査를 至急實行치안는限 慘虐한行爲는 防止되지안흘것이라고 말하엿다

後繼總理에는 宇垣朝鮮總督?

貴族院方面의觀測

【東京電話同盟】貴族院有力側의 政局觀을 綜合하면 如左하다

一木樞相이 辭任한뒤 그後任에는 平沼副議長의 昇格을 보게될 點이잇고 또 金森法制局長官도 不遠 辭任할것으로 보이는데 萬若 平沼副議長의 昇格이 잇스면 當分間은 齋藤新內府와 함께 後繼首相說은 雲散霧消할것이다 그리고 그 結果 後繼首相은 宇垣朝鮮總督說이 優勢하게될것이다

八面錄

◇ 英佛兩國政府가 陸海空軍의共同戰線을펴고 相互援助의義務를지도록 交涉中이라고。

◇ 伊의英國과 恐獨의 佛國이 相依相存을꾀함은 理의當然일지모르나 昨年의 羅馬協定은 어느休紙桶에 너헛는고。

◇ 齋藤氏가 內府로들어갓고 平沼氏가 樞相으로 올라가면 總理候補두사람이 棄權되는것。

◇ 이機會에 第一候補는 宇垣朝鮮總督이라는觀測이 貴族院方面에서 盛行。

◇ 朝鮮와다가 이치고 榮進안된사람이잇는가、齋藤이그러코 林이그러코 植田이그러코。

◇ 이러케본다면 朝鮮은大臣내는 名堂이오 總理내는 牛門方갓기도하다。

自今日本紙 朝夕刊復刊

旗 カメヤ旗店 京城府黃金町五丁目

自轉車問屋直賣 信用重視 特典付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ノ六 自轉車問屋 電話日本橋三七〇二番

肥滿劑 東京市麻布笄町七十一 小川藥院

돈버리조흔 家庭工業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第一 第二 株式會社

恩給 京城府校恩洞一六〇 鄭商會

藥 卸問屋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營業案內中越進呈 電話 本局四〇九·一〇六八 / 三〇四·三四八 振替京城一六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싱거-中古재봉틀 足踏型十五種 九十五圓부터 手廻型十五種 八十圓부터 (五個年絕對責任保險附) 市內에限해서月賦取扱함 各種재봉틀目錄進呈 재봉틀賃貸一月五圓 ◎쓰든재봉틀高價買入 京城鍾路二丁目七 楠재 봉틀店 (仁寺洞入口) 電話光三九六

치질 專門 肛門病科 東光醫院 大田本町一丁目 (電話四九番) 藥物治療顧問 柳東鉉

銘酒 誠鶴 釀造元 深見酒造場

京城鍾路二丁目 時計修理完全 普信堂時計舖

創立明治參拾貳年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農林省御推選 カドタ KH型發動機 構造堅牢 輕油使用 要部密閉 始動簡易 故障絕無 二馬力、三馬力 五馬力 七馬力 十馬力 在庫豐富 型錄進呈 朝鮮總代理店 盛泰明商會京城出張所 京城府黃金町一丁目一八一番地

國境の町 現代劇 山路ふみ子 主演 東海林太郞特別出演 新年第二週特別興行

民衆의敵 第一劇場 爆笑七日間 G·멘

아리랑고개 朝鮮語全發聲 無軌道西部의卷 優美館 貫鐵洞 電光二九五

朝鮮은 銀流出動脈 滔滔二億圓이 通過

朝鮮産銀輸出能力은不過五十萬圓

昨年中의 銀洪水總決算

작년중에 조선으로부터 동경(東京)、대판(大阪)등의 일본내지로 이출된 은(銀)은 실로이억원을 돌파하엿다한다 재작년에는 시월부터 은이출하기시작하야 삼개월동안에 오백마원이 이출되엇스나 작년사월경부터는 비상히 격증하야 작년일년중에는 드디어 이억원을 돌파하엿다한다

이것은 총독부 재무국의 조사인데 조선에서 산출되는 은(銀)중에서 이출한것은 불과 오십마원 정도임으로 결국전긔 이억원이라는 금액은 거이전부가 외지(外地)로 부터 조선을 거처일본내지로 다시영국과 미국의 은시장으로나아간것이다 그리하야 이와가티 막대한은이 조선을거처 외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에서 조선 일본내지 또는직접수출지 등의허다한중개상인들은 경긔로말미암아 졸부가 무수히 생긴것으로 조선내외의 변래적 경긔도 은경긔의 관계가 만흔터이라한다

消防出初式 (오늘광화문통에서)

(六)

百貨店牙城突擊秘策 特殊品高級品專門

東大門邊僻地로부터鍾路로進出한

兩代秦學攸氏文化商店

종로네거리에서 서편으로해빗을등지고 불경긔를모르고 발전의외길을것고잇는 문화상점(文化商店)──그는젊은 남녀들로고급품、호사품을 찻는군들이면누구나 한번식은 발를드려보앗스리만 그가이세상에 뒤바기기전 삼십여년전 동대문시장(東大門市場)한모퉁이에 눈갓에도차지안하는점포 그것의 후신이출은아는사람이적을것이다 이약이는삼십여년을올려가서 현재문화상회의 주인 진학유(秦學攸)씨의업부 진상묵(秦尙默)씨가 초립을쓰고 그아우 상덕(尙德)씨와가티 동대문시장에 얼마되지안는잡화(雜貨)를벌려노코 오고가는고객을처다보고안젓다가 얼마후에 그는 상해(上海)로 건너가 모물(毛物)을 헐가로사다가 서울에와서 다시 조흔갑스로 팔엇든것이 흥미를 끌게되야 이래로 십여년간은 모물무역상을하야 수만원의 자산을만들고 그의아들을 아우잡화상에 견습을 수삼년간 시기고 자긔는 상업계를 떠나고마럿다 지금으로부터 십오년전인 대정십년에 이젊은상인은 역시동대문시장안 한편을 차지하고 진학유상점(秦學攸商店)을열고숙부의점포에서 독립하야 자본금일만원의 파허저지안흔 상점주가되엿다 그간 파란곡절만흔 시절을경과하야 대정십삼년에는 현재의장소에 옴겨들고 소화십년에는 현대식점포의 락성됨에따라외관으로나 내용으로나종로상인의 일『멤버-』로 나타나게되야 재고품 오만원、년매매근십만원의 성적을 내이고잇다 남보기에는 삼십여년그따위야! 할는지모르나 그동안 여러가지변동이만흔가운데 대를이어 나오는데는 만흔고심담과 경험담이남어잇다 지금까지 변함업시 지켜나오는 『못토-』는 『될수잇는대로 경쟁을피하고 일반품보다도 특수품(特殊品)을 그리고 소매보다도 도매(都賣)를 신용잇게협가로──』를 잇지안코 실행한 한사람이다 그가종로의 번화가에 옴겨와 순조로 나오든것도 불과면년이지 네거리에 화신(和信)과 동아부인상회(東亞婦人商會)를 비롯하야 각백화점이 속속 뒤이어 나와 서로경쟁이 심한 판에는 한동안머리가 내둘렷든것이다 그러나문득 생각히는것은 특수품! 도매! 그것이엿다 그리고 해마다 달러가는 조선사람의 살님사리는 호사품을 느려노흔 점포와 유리창에 가장예민하게되러비치엿다、고객은 대중보다도 소수의부호자제、호화로운청춘남녀! 홍등록등(紅燈綠燈)마조치는 그아레춤과노래로 일삼는화류계남녀들은 도저히 거저보아들 고객이아님을알고 고급품으로 특수품을 잡복 진렬장에차차하노앗든것이다、류행을 차리지못하면 살수업고 출입할수업다는 거리의 신사숙녀들이 일년동안에 사주지못하고 해를 넘기는 날이면 이류행품은 어데로 가나? 그다음일년을 보장해주는 이는 엽집이다。 이리하야 가튼물건이 이년간은 진렬장을 차지한다 일반으로보아서 남자보다도사치가 더심한이는 녀인들이라는데 년년히 양장품이 세워이나고지갑에서는 푸른빗오른 도장이 더나타난다하니 과연경긔가 해마닥 늘어가는지 그들의 살님사리가 그만치 남기고 나가는지 점포에 드려빗치는 생활향상(生活向上)!괴로운우슴이 저절로나오는 것이다 이우슴이커지는데 발마추어 문화 상회에도금고 문이 자조 운동을하고밋이 무거워지는것이다 진씨는 현재주력을 도매로놉혀가지고전조선각지를 순회하며농촌고객을 끌을기에도고심중으로 그든지금 보통학교사학년에 통학하는 어린애에게도 장차상업학교로보내여 삼대째를 준비하리라한다 문화상회의『못토』에그는과연 대를이을숙한『못토』다그가그만큼오늘날의 조선사람 아니서울사람의 움직김을 듸려다보고잇는가할때 더욱그러타 생활의향상?괴로운우슴!

(사진은 진학유씨와그상점)

運動競技

東京遠征中의 延專籠球軍快捷

五十二對三十二로關東學院敗

準準決勝에早大와對峙

【東京電話電通】第十六回全日本綜合籠球大會第三日 全延專(朝鮮代表)對關東學院(神奈川縣代表)의 第一回戰은 六日午前九時四十分부터 神宮外苑코-트에서 行한바 結局五十二對三十二로延專이 快勝하야 第二回戰에는早大와對時케되엿다

延專52(18…14 34…18)32關東

【東京電話電通】第十六回全日本男子綜合籠球選手權大會 第一回戰의 延專對關東學院(神奈川縣代表)戰은 五日에擧行할 豫定이든바 延專이 耶蘇敎系學校로 日曜日의 出戰은 不可能함으로 今六日午前九時四十分에 行하기로 變更하엿다

普專력비詳報 强敵은明大豫科

第十一回全日本高專력비大會第二日…朝鮮代表普成專門對九州代表[illegible]의 第二回戰은 四日午前十一時半부터 花園球場에서 열리어 三十四對三으로 普專이快勝하엿다함은 昨報한바어니와 이날의詳細한戰況은 다음과 가트며 普專은 今六日午後一時半부터行할 三高對[illegible]의 準決勝戰에 勝하나 最後決勝戰에는 强敵明大豫科와 決戰할것으로 豫想된다

普專34 明專3

普專對明治專門戰은 十一時四十分부터 普專킥어프로開始(主審 長沖、線審松原、武川三氏)

【戰況】普專은得意의 蹴走로 利하야 開始後「롱킥」으로二分까지 PK로三點을先取하니 이에明專力戰하야 八分에明專PK로三對三同點되엿다가 普專FW線의猛躍으로 數師을壓倒하며十三分에 TB韓往澤의 『트라이』와 十八分、二十七分에二꼴、一트라이를加하야 十四對三으로 前半을마치다 後半에드러가 普專의決戰더욱猛烈하야 [illegible]四點을 加하니 三十四對三으로 끗나서 普專快勝하엿다

【普成專門】FW [illegible] HB [illegible] TB [illegible] FB [illegible]

【明治專門】FW 中見本延村賀山西野 HB 多川辻 TB 田自岸松木吉村田多田 島堤 FB 羽戶田城柴

對立教戰에 普專惜敗 三十六對三十으로

【東京電話電話】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 準準決勝…朝鮮代表普專(不戰一勝)과 第一回戰에千葉醫大를 이긴立敎大學과의 對戰은 延專對關東學院戰의 뒤를니어 施行한바 [illegible]的 活躍을보이고잇는立敎는 普專의섹트오펜스를 極力防禦하야 前半에 伯仲之勢를 보이더니 後半에 드러가 普專意外로 不振하야 結局三十六對三十으로 惜敗하엿다

立敎36(23…14 13…16)30普專

全日本氷上日割決定

全日本氷上스피-드選手權大會는 一月二十二、三兩日間 日光細尾링크에서 行할터인바 參加希望者는 各所屬地方聯盟의 推薦을바더 一月十五日까지 丸之內仲五號館內 日本氷上聯盟事務所로 申請하기를 바란다고한다

◇第一日(廿二日)스피-드部(日光細尾링크)▲男子五百米 午前九時半▲女子五百米 同十時半▲男子五千米 午後答時半

◇第二日(廿三日)스피-드部(日光細尾링크)▲男子千五百米 午前九時▲女子千五百米 同十時▲男子一萬米 正午

百戶長豪農이 共軍巨頭로

哈市에潛入中被捉

【哈爾賓】 호농(豪農)이엿든 백호장(百戶長)이 일전(一轉)하야 조상지(趙尙志)의 밀영(密令)을 띄고 반만항일을 표방선전하면서 동북반일유격농민자위단(東北反日遊擊農民自衛團)을 조직하야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합이빈 교외태평교(哈爾賓郊外太平橋)에 잠복하여잇는것을 부가전 분대(傅家甸分隊)에서 이를탐지하고 현장에급행하야 대격투끗테 체포하엿는데 그는 쌍성현제구구장가원자(雙城縣第九區張家院子)에 살고잇던 조석구(曹錫九)(三四)로 재작년십이월에 상시의 제삼단장인 장련과(張連科)가 인솔한 일백칠십명의공산군에게 습격을 당하야 장총 열다섯자루와 권총한자루를 빼앗긴 다음 반만항일선전에 참가하게되여 전긔와 가튼 자위단을 조직하고 장련과의 지령에 따라 조상지가 인질(人質)로 잡어온 납치대금요구(拉致代金要求)와 무긔탄약의 밀매등을 위한 중요역할을 하고잇섯든것이라는바 더욱이 매협 삼사회식 농민에게 반만항일선전회를 개최하고 적색완장(腕章)과 삼각적기(三角赤旗)를 두르며 농민선동에 열중하엿다고한다 지난구월에 일본군토벌에 맹습을당하야 전부랑을 소각당하고 태평교에 잠엽하야 마차차부로 행세하고 생활을 지속하다가 전긔와가티 체포되여 지난달 십구일에 합이빈경찰청에 송치하엿든것이라고 한다

今年七月까지 鷺梁津線延長

京電서近近工事着手

한강인도교(漢江人道橋)의 가체(架替)공사는 금년중으로 완성할예정인데 이에따라서 경성전긔회사(京電)에서는 시내 전차를 한강교 종점으로부터 시흥군북면 로량진(始興郡北面鷺梁津)에 이르기까지 ○、팔킬로미[illegible]를 연장할계획으로 작년 십일월일부로 당국에 그인가를신청중이던바 각관계당국의 량해를 어더 정식인가가 나게되엿다 경전에서는 인가가 나는대로 곳 공사에 착수하야 금년칠월일일까지에는 준공식힐 예정이라고한다

平壤地方에酷寒

三百戶窮民救濟運動

【平壤電話同盟】지난다새날 밤중부터 기온이 갑작스럽게내린 서조선지방은 엿샛날아츰일곱시에 이르러는 령하이십일도 일분을 보혀서 평양(平壤)시내의 가난한사람 삼백명가량은 소화(昭和)륙년이후의 처음당하는혹한이만큼 궁핍의절정에 달해잇서 어렴죽는사람이 아프로 련거퍼 생길념려가 잇슴으로 평양부국에서는 일반부민의동정을 바람과함께 그들구제책을지금강구하기로되엿다한다

泥解한親知懷中 現金을窃取藏匿

친구끼리 술마시다가 못된마음이 생겨서 취해 고라떠러진사람의 주머니를 뒤저서 돈훔처내이고 정초에 류치장신세진 사나이──시외 룡강면아현리(龍江面阿峴里)사칠번지 리신도(李神道)(二七)는 지난다새날 오후일곱시쫌되여 동무 네다섯명과함께 자기동리가튼번지 칠백사십

新京丸遭難

乘客三十六名은救出

【新潟電話電通】신석과북조선정기항로기선 조선우선소유신경환(新京丸)(이천칠백륙십사돈)은오일오전열한시 신석항에 입항할예정이엿든바 대풍설로말미암아 좌도(佐渡)로 피난하고저 항로에따라 소수서에서는즉시수상경찰을 소집하야 풍설을 무릅쓰고 구조선을 파견하야 구조에 노력하는중이다 피난장소는 신석항의 북방 송기(松崎)지방에 좌초한모양으로 이배를탄손으로십칠명 승조원은 오십명이라고한다

【新潟電話電通】별항신석환조난에 대하야는 신석항관계방면으로부터 구조선을 파견하얏스나 풍설은 점점더심하고 풍랑은놉하서 출동치를 못하고 수수방관할수밖게업는 형편으로 도저히 리초(離礁)할 가망도업서보임으로 굴(掘)선장은 륙일오전아홉시 풍랑을 무릅쓰고 뽀트를내려선객삼십륙명을 태워해안으로상륙식히엿다

主人을結縛코 三百圓强奪

年頭黃州에鐵絲强盜

사일 오전 세시반에 황해도 황주군 안남면 순천리(黃州郡安南面順天里)사는 안남면장 박운규(朴運奎)씨의 집에 강도한명이 몽둥이를 들고 드러가서철사로 박씨의 두손을 묵거노코 지갑안에 드러잇는 돈 삼백오십원을 빼아서가지고 도망해버렷다한다

新村에火災

오일 밤 여덜시에 시외 신촌리(新村里)일백륙번지 리묘묵(李卯默)씨의집에서불이나서 약두간반이나 태우고 사십오분만에 불을 잡앗다한다 원인은 구들이 꺼진데서 불이 올라와서 미다지로 올마붓튼것이라한다

天氣豫報

七三○의미리의 低氣壓은 오호츠크海에잇고 高氣壓은 滿洲에七七六의미리를보이고 北方을 向하야낫고 北支那로부터 滿洲에뻐처서는 氣壓은 傾斜가緩慢하다 北朝鮮은淸、湖南地方은小雪、表日本은淸、裏日本은季節風이 强하야 곳곳에 降雪이잇다 京畿道全區及京城地方은 今夜바람이弱하고 大體日氣가조타 來日도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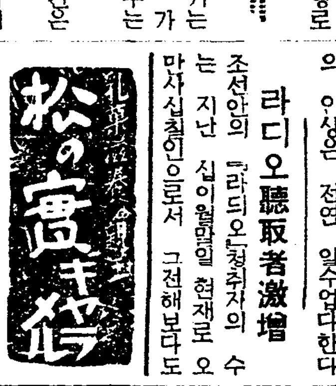
昨日最高 零下 五度四

同 最低 零下十二度三

今日正午 零下 六度七

라디오聽取者激增

조선안의 『라듸오』청취자의 수는 지난 십이월말일 현재로 오만사십칠인으로서 그전해보다도 일만이천오백사십칠명이 느럿다 그중에서 조선인 청취자는 일만삼천륙백오십팔명이고 일본내지인이 삼만륙천칠십일인이며 그밧게 외국인이 삼백십륙인이라고 한다



一月六日(月曜)

◇同六時 이야기 一月의偉人이야기 幸鳳祚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 新年과習慣 黃義敦

◇同七時三○分 講演 新年의展望(四) 崔南善

◇同八時 赤壁歌外 一、赤壁歌 二、鐵杖歌 三、小春香歌 四、노래가락 趙牧丹 李竹葉

◇同八時三○分 映畫이야기 徐相弼

◇同八時五五分 管絃樂(레코-드演奏) 交響曲 第五『運命』C短調 作品 六七番…베-토-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콘브리오 第二樂章 안단테·콘모-트 第三樂章 알레그로(스케르쪼) 第四樂章 알레그로(倫敦커-ㄴ스호-ㄹ管絃樂團 指揮 헨리·J·웃드卿)

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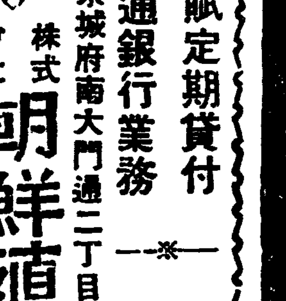
一月七日(火) 十二月建己丑(小)十三日 戊子火翼閉

●祭祀에宜합

●小寒六日(舊十二日)

●大寒二十一日(舊二十七日)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專務取締役 堤永市
支店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驪州、大田、永同、大邱、釜山、開城、延安、平壤大和町



원료 물감 染料藥品 福壽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電車停留場前)
合資會社 福壽洋行直賣部
振替口座京城九三四番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有賀光豊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風病
大風病은百發百中全治하는有名한漢藥이本藥院에서發明되엿다 此風病藥이出生한지不久에慘酷한大風患者로서完全根治된者가續出되며 [illegible]

四日特別封切(四日間) 新春第二週特別提供(晝夜二回)
諸彥待望の映畵遂に中央館封切!
東日、大每國際ニュース班 PCL·泳音·解說吹込 エチオピア特別ニュース 全二卷
新興キネマ特別提供 千惠プロ超特級時代劇 原作長谷川伸 片岡千惠藏主演 股旅新八景
コロムビア短篇超特作漫畫 スクラッピーの主題歌
コロムビア短篇超特作漫畫 ペン、ハリソン氏
PCL超特作提供第一回名篇 空中舞曲 原作サトウハチロウ 監督木村莊十二
三色旗ビルディング 宇留木浩、徳川夢聲、神田千鶴子、加賀見二、大平八郎、藤原釜足、伊達里子、細川ちか子
永樂町 中央館

正月四日낫부터 七時부터 繼續映
大衆料金 階上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 小人十錢
新年第一週滿員謝禮大暴落最高級番組公開
메트로골드윈메-야-超特作 監督루-벤마무리안 戀愛至上映畵 크리스치나女王
一國의王座를차지한女子의사랑을사랑에바다로멀니幸福에서不幸까지!
와-나-뿌라자-社特作大冒險篇 監督하-리-뷰몬氏 나는참大王
松竹키네마社右太프로現代味化한超特作時代劇 監督古野英治 幽靈行列 文藝春秋所載市川右太衛門主演 內容滿足時代劇帝王篇
仁寺洞 電光一五二三 朝鮮劇場

釜山府草梁町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園一八二番 一三八二番 振替釜山一五三五番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京城自宅院長 聖龍先生은科學的관상학의大家로서 만흔 大사업가名士들의관상을보고 大好評을밧는 관상계의 권위자입니다 헤매는분、適業을擇하고大成功을바라는분、幸福한結婚을바라는분、夫婦間에서로原因모르는분、株式、期米、鑛山、取引으로 큰利益을보나、損害를당하나를 알라는분、其他、당신이 어떠한問題든지 聖龍先生은 明確하게觀知하여 判斷하며 [illegible] 今時에 功의길을 보여주는 寶로 보람잇는 判斷입니다 운수가트일운명이되시요 料金은普通觀相壹圓이오

[생선룡성]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南大門과大漢門의中間電車通り)
京城相學院
◇地方에게신분은생년월일과 면못자세히적어서드립니다 要件을자세히적으시고료금을付送하시면 (사진이잇스면더욱명확함)

賀正 元旦

寫眞銅版 亞鉛凸版 二色及三色版 プロセス版 金文字型版 商店看板 寫眞出鉢版 其他寫眞版 應用版一式
海英舍 寫眞製版所
京城府慶雲洞九六 電話光化門二一四八番

京城府太平通二丁目五八番地
合名會社 曾我商店
本局(長)五三六八番

和洋食料品專門
南桂洋行
電光 八九一〇五九

日獨硫化黑染料總發賣元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八
各染料顏料 石鹼原料 製紙用パルプ 其附帶品
日獨染料合資會社
電話本局(2)四三三九番 振替京城七八三六番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十五番地
貴金屬婚禮 裝飾品花物
萬花堂
金墩元
電光二〇九三番

高陽郡纛島面纛島里
纛島面會議員 纛島金融組合長 朝鮮企業株式會社 取締役
文承根
電本三〇一〇番

京城府水道課纛島水源地
主任 谷口清三郎
清山源吾
竹中右兵衛之助
殷中欠禮 櫻木安照

京城市外西纛島驛前
正友材木店
主 盧正福

京城市外西纛島里
藥酒濁酒 春豐釀造場
主 李春成

京城府外纛島(元模範場跡)
果樹苗木生産販賣
久次米園藝場

高陽郡纛島面會議員
孫慶鎬

高陽郡纛島面纛島里
延聖求

高陽郡纛島面纛島里
延昌求

京城市外東纛島里七七八
穀物材木 薪炭委托業
金春錫

京城市外東纛島里
東昌材木店
主 廉命天

京城市外東纛島里
竹木雜貨 永信商店
主 林興澤

京城市外纛島
果樹苗木栽培
山田鶴太郎

京城府漢江通
龍山工作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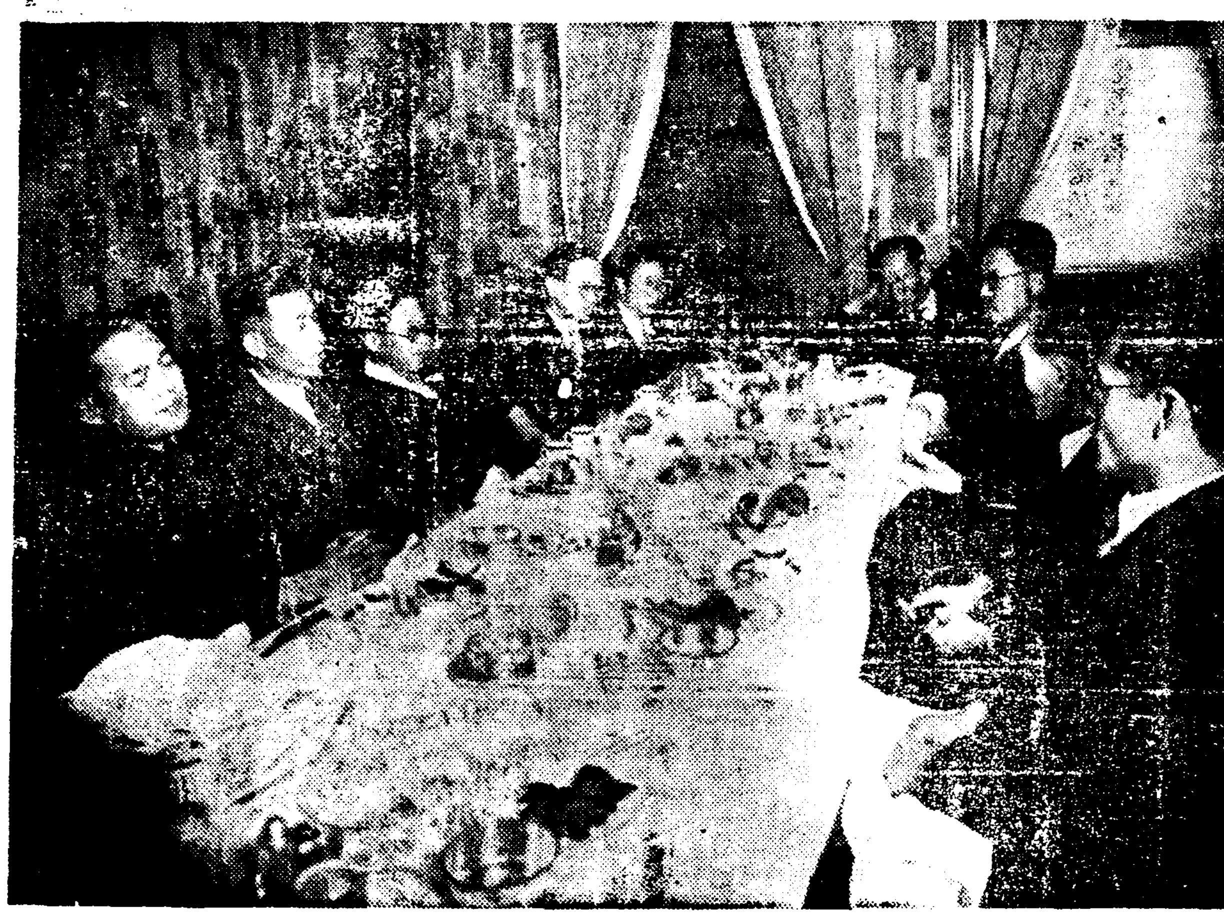
京城府崇仁洞八四番地
白米雜穀 柴炭
大盛商會
電光一八五三番

★★★ 映畵非常時·映畵人의저녁 ★★★

映畵를떠난映畵閑談

話題十二項

1、내가조와하는俳優
2、朝鮮의一流映畵俳優는누구?
3、銀幕에나타난自己를처음對할때
4、『러부·신』격거본感想
5、朝鮮映畵에서 첫손꼽을作品?
6、×萬圓이잇다면映畵事業을엇더케?
7、撮影所挿話、意外의成敗談、成映畵人이밧는優待薄待、訪問客戀愛便紙
8、내가結婚을한다면 相對者는엇더方面에서?
9、映畵批評家에게 하고십흔말
10、朝鮮사람의表情 낫고못한點
11、나의映畵美人觀
12、其他하고십흔말



映畵人의會合 지난 十二月七日밤 『千代田그릴』에서

鑑識眼을가지고 作品評을써달라

安鍾和

1、한 八、九年前엔·松竹映畵에서 五月信子와 新井淳을 데우조와햇슴니다。그들은 다 中年女人役과 老男役을 장끼로하는 俳優들이엿는데 演技로보아 舞臺上 입거일홈이 自然스러우면서도 心理上으로 어려나는 顔面의변화를 能하게 表現해가든 點을 取하엿든것입니다。

2、羅雲奎、金蓮實。

3、처음으로 自作短編(三卷物)을 完成해가지고 試寫室에드러갓슬적에 처음은 그저 마음이 몹시밧버섯구요、막映畵가 시작되려는 어느절에 三卷이 다풀리든지 얼덜떨햇슴뿐입니다。그리어바ㅡ。

4、섭섭하나마 最近엔 興奮이 업섯슴니다。

5、『아리랑』입니다。

6、映畵國이엇다해서 그것이 무슨 제법한 映畵事業의設計를 세울만한 資金은 못되는터이니까 한번 無聲版일지라도 一作의 費用으로다提供해서 結果를 보고십흔慾心은 잇슴니다

7、不注意로해서 오는失敗는잇서슬지 모르되 意外에 신기한일이란 업섯슴니다。한번통변한적은잇지요『노래하는시절』의 十役場을 撮影하려고 장춘단附近으로갓다가 人夫들에게 오해를 사서 어더마질번햇슴니다 理由는녀하필사진 박혀먹을게업서서 우리들의 勞働사람바러다 연극장에 내여놓게 무어냐는』시비로 해서。나個人으로선 社會的으로 밧는 優待、박대를 늑겨본적이 업슴니다。그러나 어떤意味로봐선 映畵界全體로서 밧는바 대접갓가트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朝鮮映畵界에 大資本이 떠러지도록까지 全社會의성원이 업서든것을 가르킬수잇겟지요。압흐론 연애편지쯤도 좀잇서봣스면하는데요。

8、그거머 대답하기는 어렵지 안흐엇이나 내아직 유심이 대단한터이니 아직 미발표로 덥허두겟슴니다。

9、압흐로 작품評을 계속해서 高尙한鑑賞眼을 기르라구나 부탁하고십흔가요。더구나 映畵란 한비평 건둥건둥 보고나서 고마운한 서미에 評을 잡기前부터 評者自身이 먼저感情에겨한 흥분을하지말고 철경 그評文들이 評者의 권위를나하기쉬우니까요ㅡ。

10、아직도 朝鮮의 映畵俳優란 맛치 바다에서 놀아온 을 조그마한 네여다 잘 어는게이니까요。머ー말을 어복가 업겟지요。

11、李光洙氏의 名作小說가운데 『再生』이나 『無情』에 登場하는 女主人公을 말하고십습니다。

12、제작 하고십흔말이야 만챗지요 하지만 조그마한 이欲 들이다 엇지다 名겟습니까 그저 어만하여두지요。

戀愛劇成功은 失戀해본다음

沈影

1、한솜·야ー려 『未完成交響樂』에 『슈베르트』로 扮裝 이분에 容貌는 불스럽고 訥辯 떠려 그의 演技는 퍽이나 自然스럽다 우리는 그분自身에 조흔人格과 敎養이 그에演技를 表現식히기에 어렵지안헛스리라고 確信하고십다。

그러다·캄보쎄 그의容貌는 沙漠에 홀노선는 『스핑스』를 聯想식힌다。靑春의 熱情과 大膽스러운 演技를 나는보앗다。정말名俳優는 主張히 平凡하면서도 眞實히 表現하는데잇다고 말하고십다

2、朴齊行氏 가장眞實한點에서 그러나 그의演技가 『마네킹』에빠짐을 念慮한다。全玉孃 確實한個性을 가지기때문이다。

3、스크린에서 내얼굴을처음보앗슬때에는 깃브기도하고 붓그려웟다。

4、映畵에서는 아죽려브신에 經驗이업스나『려브신』에 成功하려면 戀愛에經驗이 必要함을 늣기려 반다시 失戀者라야보리 後라야될줄안다

5、沈薰氏監督作品『먼동이틀때』

6、資金五十萬圓(最少限度)만잇다면 兒童映畵製作所를 創設하고 製作된映畵(勿論토ー키)로 어린이들에게 藝術敎育을식히고십다。

7、年前李圭煥氏監督作品『바다여말하라』製作中 破船場面을 드리크로 撮影할때 때마침 치운겨울임에도不拘하고 漢江江邊에ㅡ約二時間이나 물벼락을 맛고 바지저고리입은채 水中에 잇다가 찻찻하면 心臟痲痺로絶命할번햇섯다(外國가트면 물에 溫度를 맛치여놋코 따크스데지에서 햇슬것이다)

나의 成功은곳까지 眞實하게 나아감에 잇다고말하고십다 逢境、優待、薄待이모ー두問題 내自身이 紳士淑女에서의 질이어야도록 늘 反省하고잇다。新聞紙는 별로 업고 雜誌片紙가든것은 오지안키를 바란다 조용히 마음만 괴로워질 탓이니까?

8、第一 내가 結婚을 한다면 女俳優보다는 다른 方面이 조흐리라고 밋는다。그 理由는 서로 밧분 몸이니까 貧乏을 求할수가 업다。네 理解性이잇고 서는 理解하고 理解가 도活動力이 豊富한女性(幼稚園先生님이나 或은 看護婦에 經驗者가 엇덧는지?)

9、朝鮮에는 우리映畵를 위해서 眞正한批評을바란다。映畵界의 環境을 잘理解하며 正當한 批評을한다면 퍽幸福이다。

10、外國사람은 日常對話할때에도 말에『리슴』과 感情을 表情과 動作과가티 表現한다 그러나우리들은 傳統的因習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無表情하다 그러나그들에 흉내올 必要는 업다고본다

11、映畵的美人이라는것은 조코 얼굴이 아름다워야한다는니보다도 個性이잇는 얼굴이 必要하다 脚線이어엿코 허리가 가늘고 코에놉히가얼마며 눈이크고입술……이러한자로잰듯한 아름다움보다도 움직임으로써 自然스러운美와 感情을 包含한 아름다움이잇슴으로써 映畵的美人이될수잇다 반드시 美男美女래야만映畵에 主人公이되란 법은업다 그役에 適當한 적(타입)과 個性만잇는 俳優라면조타。

12、世界的名監督 킹빠ー러氏發表의 作品評 個性(三五%) 美(一五%) 體(一五%) 技巧(一五%) 姿(五%) 步行(五%) 均整(五%) 語法(五%)

資金만잇다면 할일은한하지요

朴淵

1、男 『케리·쿠버』의 동작 女 『꾸리기테·헬므』의 용모

2、映畵배우와 演劇배우는 移動性이만흔 만큼순수영화배우는 찻기도 어려운현상이니 朝鮮에서 當代의 一流영화배우를찻는다면 多博多識하여『스크린』에 여려번 나왓는사람들을 第一人氣者라고 할수잇슴니다

3、夢想에서 現實化된 自己수집고 긴장된 마음으로 떨림이 풀려가는 순간 쥐여진주먹에 땀만、흐르며 『좀더大膽하엿드들』하는 마음 자긔도 모르게、조흔 장면도 잇지만 意外에실패된、장면들을때에는 全身이불에화라는듯 試寫를보고、되도라서서 촬영하면 명배우안될사람이업다는 자내친말도잇지만 滿足感보다 不滿한感이더만흔것이 그때의感想입니다

『려부신』을 격거보지못한나는 『려부신反動』의 이약이를하지요 男女가껴안고、살이맛닷는다고 이상한감정은 업스며보통다른 장면과같이 그장면에 동작표정을 엇더케할것을 미리알고잇는만큼 감독의 신호와동시『크랑크』소래가나면 긴장된마음으로 연긔에 열중되여옷음일다롱이지요

5、時代의 産物이만흔『아리랑』이조와고 『먼동이틀때』도조와습니다

6、적은資金을 생각하고 잇는 큼한十五萬圓만 잇다면는漢江畔에다基地二百坪을買入하고撮影所와合宿所等一百三十坪을建築한다면 費用金二萬圓以內될터이며 또二萬圓으로 發聲機、電氣道具其他一切을 設備하여놋코 殘 十一萬圓으로는 映畵製作을하는대 企劃部 製作部 營業部로 나노아 每月二本을目標로 한번 突進하여본다면、하는생각입니다

7、영화인이기 때문에 밧는優待라는것은 극히 드믄일이요 氣分에 뛰노는사람、또는향락을 일삼는사람에게는 흥은好感을 엇을수잇는일도 잇지만 實業家나 官吏人또 文化運動者까지도 薄待라할것은업지만 先入見的으로 좀輕視하는 경향이보일때에는 대단이불쾌합니다 아마어더한傳統으로그려는지 영화인자체가남버그런지하여간섭섭하쇄상입니다

8、나보다나은子女를 만들기위하여 결혼의상대자는 교양잇는女性이조흘듯합니다 그러나 理解가업다면 차라리허영의化身을조흘

9、外國의영화감독이나、배우는 技術的으로여려번 거듭거듭경험하엿스며 영화로써 未備한 점업시 그곳文化의 中樞가된 영화와 우리社會의 私生兒서인영화와 엇더케比肩되라 外國映畵 水準에서 朝鮮映畵를 해부하지 말고 朝鮮現實에서 評하여주기를 바라며 더脫線的인評家는 朝鮮映畵라면 나

오는마다 깍거노랴는 模倣을가젓스니 批評인지 毁謗인지 느려놓어면 영화평의 失敗도 크려니와 出演者의 도라가는 그림자가 쓸쓸하지안흘가요?

10、일반적으로 洋人들의 체격과 얼골輪郭이곱은만늠 平面的인朝鮮人보다 畵面에는 조타고생각하며 線이적은 表情은 관중의게 주는印象이 미약함으로 效果에잇서서도 朝鮮人이그네들만 못할줄압니다

11、『짜넷드·케이너』와 가튼 순진하고 가련하게 생긴얼골그리고多感해보이는그러한녀배우가朝鮮에도한분게섯스면합니다

12、言論機關에서 (금번朝鮮日報社에서하는이形式 또이以上의더 조흔 다른方式)좀 더칠릴이하여준다면는 영화계의발전에 그만큼 효과가잇슬줄알며 對內로는 영화인의 集會할기관이잇스며는 자긔수양과연구는勿論 社會的으로 有利한길이만흘줄압니다。

「러부신」次例를 닥처보지못해서

卜惠淑

1、크락·케ー블 (男優) 쫀·크로포ー드 (女優) 容貌로나 演技로나 나가조하하는俳優

2、男子로는 李慶善氏가 第一조슴니다 (多年經驗으로보라든지 그의老鍊한演技 그리입부지도안코 그리민지도안흐며 수수한맛이잇는얼골) 女子로는 金蓮實孃이라고 보겟슴니다 容貌야 그리입부지안호나 그演技야 當代에 울사람이 아즉업는줄압니다

3、애舍經驗도 가지지안햇스나 映畵俳優로는 맛지안는 얼골이옵시다 老役이면──하고 해보앗습니다마는 亦是、結果는 零이옵시다

4、려부 씬 이란 나가든俳優에게는 次例가업서서몰으겟습니다

5、作品으로는春風이엿스며 興行으로는 春香傳이좃습니다

6、現在에 그런巨財를가지지도 못하엿스며 將來라도 가질것갓지안아서 이點에는 이렇다는 案이업습니다 企業家가잇다면 우리들의 事業을 支持하겟지요

7、別로 神通한 이야기거리가 업습니다

8、내가 萬若結婚을 하랴면可及的 다른方面사람을 끌으겟습니다、가른方面사람이면 意識的으로 衝突이나기 쉬울것갓습니다

9、朝鮮映畵界의 事情을 잘알피고 또는 어느映畵를 評하라면 적어도 二三回充分히보고서 自身이 研究하야 좀더 調理잇는 批評을 해주기바랍니다、덥허노코 昧만쇼다고批評家라고 認定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初創期에잇는 朝鮮映畵의 成長을 爲하야 그打開策을 研究하는것이 先覺者의 일이라고 生覺합니다。

10、잘은 몰르겟습니다 마지 原來 表情問題에 잇서서는 무엇이라고 말할지 몰르겟습니다。

11、勿論 東西를 勿論하고 그나라를따라 物情이 다르며 國民性이 다름으로 事物을 表現하는얼골이 다를것이고 生覺합니다 그리고 잇슴니다마는 어엇타는것은 말슴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大體로 朝鮮色이 잇는얼골이라야 쓸쓸합니다。

戀愛便紙十餘張 하로 불쏘시개

申一仙

1、男子로는 콘랏드파이트의 넓은이마가조코 女子로는 크레타칼보의 妖艶한눈이조와요。

2、(第一人者라고 할수잇는 男女俳優) 男子로는 勿論 羅雲奎氏、그는 非凡한演技者일뿐만안이라 映畵製作者로서의 天才와 人格을 具備한點으로보아서 斷然…女子로는? 아마 金蓮實孃이겟죠 熟了한演技와 年光으로보아서……

3、내얼골이 처음 스크린에낫하낫슬때 好奇와 不安과得意와 落心、그모ー든영크러진心境을 말노써 하랑이면 맛치 식장가는곳각씨가죠례청에 드러섯슬때와 갓다고나할는지요

4、(러부신을 격거본이야기) 映畵에서는 別로히 그럴듯한 『러부신』을 격거보지 못하엿습니다。

5、(朝鮮映畵中에첫손꼽을作品) 아죽까지는 春史氏原作『아리랑』이겟죠ー제가 出演한 作品이래서 그런것은 안이지만…

6、돈에萬圓이 잇다면? 그러나 저는 한개의 女俳優일뿐、企業的 所願은 別로업소이다 더구나 돈에萬圓이잇서보지 안코는 말슴드리기어려워요!

7、失手도 意外의 成功도 別노 못해봣소이다、아죽 自己意見으로 움죽일수 잇는 完成期에 達하지 못한만큼… 男女訪問客이요? 逢境當한 이야기도 할만한것이업고 優待薄待도 別로업섯지요 一定한곳에 別莊이나 自己집이라는居處를定할수업는가난한셋방구석……차저줄사람인들잇겟서요、戀愛便紙요? 수월찬죠 하루에적어도十餘張은……無軍奔走한제 민서 방닝한테서오는 고마운편지을방습니다、그러나大概는 불소시개나 만씨게로使用하고 別로 읽어보지는 안혓서요、그것은 戀愛便紙인까닭에……

9、映畵批評家의게하고십흔말이 글세요 주제넘은말슴갓호오나 朝鮮엔아죽까지 正當한 映畵批評家라고 認定할만한先生님이 안게시니 멧분이나되실가 그런고하니! 至今까지 批評家云云하는 그분들은 大體的으로 편벽되엿 이잇고 남의헛집을 꼬집어내기가 일수요、自己自身이 經驗해보지못한그것까지도 억지로 批判하려는 過作이感間구여잇이게하는일이만흔군요! 新聞이나雜誌가트대 남에評갈 쓰는先生님들……그들은 아마 評과評의分間을 못하는사람들인가봐요

10、表情에잇서그야西洋사람보고 朝鮮人役을 해보면 亦是우리만은 못할것이니가 말하자면 표장이겟죠!

11、映畵的美人이요? 何必 美人이에요、美人이 아니고는 主人公노릇을못하나요? 나가른 『尾人』도 主人公노릇을 해보앗는데……

12、『하고십흔말이요?』 만습니다。귀가 맥히게 만습니다。설은 사정、슯흔 사정、아니꼬운 사정、억울한 사정…… 가난한 朝鮮의 女俳優로서 말못하는 사정인들 오작만켓슴니까마는 그러나 나는 다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잇슬뿐이에요 沈默은 내마음의 貯水池를 둘려싼 堤防한 防築이외다 萬一 그防築이 문허지는 날에는……그야말로 큰일이겟죠

軍隊改造革靴大販賣

今般陸軍省拂下品이라도一件이라도注文하시면

◉軍隊拂下改造編上靴
本品은軍隊拂下中古編上靴를改造加工한新半張革의鋲을打入한實用堅牢品
茶利革一足 A品 二圓三十錢 B品 二圓十錢

海軍拂下陸軍隊用 黑革編上靴 A品 二圓五十錢 B品 二圓二十錢

◉海軍拂下水兵短靴 改造品

黑總革水兵短靴 A品一足 二圓十錢 B品一足 一圓九十錢
本品은海軍拂下水兵短靴를改造加工한中古品으로서新品半張革打込堅牢無比
水兵作業短靴 甲ゾック底革 一足 一圓五十錢

◉新黑ラシヤ製防寒長靴

黑厚ラシヤ厚底一枚革 中古フエルト製 防寒長靴 特價一足 二圓九十錢 二圓八十錢

◉軍隊靴 中古改造 スキー靴 茶利革一足 三圓八十錢

◉青年團用黑ボックス總革
編上靴 一足卸値 A品 三圓五十錢 B品 三圓二十錢 特品 三圓八十錢

◉新品高級黑ボックス總革 フランス型短靴 一足卸値 三圓九十錢
◉黑ボックス編上靴 フランス型 一足卸値 四圓二十錢
プル型 同値

◉新品軍隊式編上靴 茶利革 一足 三圓八十錢

御注文은往復하시면一品이라도小包代引으로付送합니다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御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六二二九番·振替名古屋一二五一二番

恭賀新年

羅州

羅州邑職員一同
細枝面職員一同
榮山面職員一同
鳳凰面職員一同
旺谷面職員一同
茶道面職員一同
公山面職員一同
金川面職員一同
洞江面職員一同
山浦面職員一同
潘南面職員一同
南平面職員一同
老安面職員一同
平洞面職員一同
三道面職員一同
本良面職員一同
多侍面職員一同
文平面職員一同

000062

三道酒造場 吳演根
文平酒造場 朴成林
旺谷酒造場 姜[illegible]敎
鳳凰酒造場 徐桂洙
大草酒造場 崔盤石
金川酒造場 金容台
洞江酒造場 崔萬化
南平酒造場 羅夏集
西田酒造場

羅州邑 金石斗

李載英 李昌洙 丁基哲 許奉信 梁癸元

羅州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旺谷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三道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羅州邑 布木商組合

百洋貨品 羅州協同商會 電話六五番

羅州郡廳職員一同
羅州郡農會職員一同
羅州郡學校職員一同
羅州郡鄕校職員一同

洞江面長泉里 精米業 朴鎭石 朴東奎

羅州邑三福里 朴奉一

榮山浦 朝鮮料理 榮樂館 主 金炳五

羅州邑大正町 朝鮮料理 春日亭 主 崔珠玉

本良水利組合
平洞水利組合
多侍水利組合

羅州邑土界里 許永奎

羅州邑南門町 最新流行高級洋服 珍興洋服店 主 林鎭鎬

羅州邑錦城町 羅州穀物貿易 羅州商會 電話六九番

金川面新加里 精穀業 金相仁

細枝面五峰里 金淙炫

羅州邑土界里 許國香

榮山浦 公醫 崔翼鴻

羅州邑 鄭鳳鎬

山浦面內基里 崔鎭·泰

羅州邑錦町 金山商會 主 金[illegible]烈

榮山面富德里 河東秀

榮山浦 羅州米穀商 金奉祺

鳳凰面龍谷里 裵眞星

榮山浦 羅州米穀商 朴章煥 電話五八

榮山浦 羅州米穀商 李容佑

榮山浦 精米業 朴甲鳳 電話一〇六

榮山浦 精米業 劉箕鍾

榮山浦 貨物自動車業 權星商會 主 曹士元

榮山浦 司法書士 金敬洙

榮山浦 朴今石

榮山面協議員 金秉柱

旺谷面良山里 生薑出荷組合職員一同

細枝面橋山里 朴泳奎

旺谷面新浦里 崔榮哲

細枝面橋山里 李仁采

洞江面曲川里 朴佳相

鳳凰面德林里 吳玟華

羅州邑 喪中缺禮 鄭[illegible]鳳

茶道面楓山里 洪丙憲

羅州邑 孫洪洙

金川面新加里 李昌俊

山浦面 張翰洙

羅州精米所 鄭世勉 電話二一番

羅州邑大湖里 姜相祐

山浦面德谷里 魯炳元

羅州邑本町 朝日洋服店 主 崔東鎬

羅州邑 齒科醫院 羅[illegible]山

山浦面等谷里 金成伍

羅州警察署職員一同

羅州邑本町 湖南醫院 金明 電話五八

羅州邑本町 司法書士 李啓斗

老安面協議員 李亨洙

老安面永平里 金永鈺

榮羅金曜會

三道面大山里 吳奉洙

多侍面新楓里 林炳元

多侍面永洞里 李義[illegible]

羅州邑 鄭安民

羅州邑 精米業 李連 電話六[illegible]

羅州邑本町 羅州印刷[illegible] 電話五一番

旺谷面 崔寬[illegible]

榮山浦 齒科醫院 朴張[illegible]

羅州邑南門町 貨物自動車部 丁半鉉

羅州邑本町 主 尹[illegible] 重春

榮山浦東拓住在所 小[illegible]光雄

榮山浦 精米業 文正周

榮山浦 精米業 李東起

榮山浦郵便所長 古藤孫作

公山面 金相洙

鳳凰金融組合 鄭昌連

南平面大橋里 朴京洙

南平面東舍里 丁奎俊

南平面大橋里 朴洪植

羅州邑 梁[illegible]鎬

羅州邑 梁東鎬

大京城中央地에 漢城圖書株式會社增築

發展하는朝鮮社會相의一面

三十萬圓의堅固한基臺

해마다 줄어갈도 조선사회의 일면이지마는 해마다 늘어가는것이잇음도 조선사회의 일면이다 경성시내 견지동(堅志洞)에 자리를잡고 전민족적으로신임을 바다오던 한성도서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는 금번에 사옥을 증축하고 또한건물 지경을보여 새로운 긔운(氣運)속에서 대대적 확장을 개시하엿으니 이는 참으로 경하할일이라 한다。 그것이 단순한 영리긔관이라 고하여도 조선인의 손으로 경영되어 나가는이상 누구나 다 응원할필요가 잇다하려니와 더구나 한성도서회사는 단순한 영리긔관에만 그존재의 의의가 잇지안코 조선문화사업에 막대한 관계가 잇는긔관이만큼 실로 조선사회의 협력원조가 잇어야만 할것이다。 더구나 사업의 일취월장으로 三十萬圓의기본재산우에 수만원을더하야 사옥을 증축락성한것은 실로 통쾌하달이라아니할수업다

出版部新設

增築을따라서

전긔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는 이번사옥의 증축락성을 따라오래 경륜하던 출판부(出版部)를 新設하엿다。 이출판부에서는 그사업을 더욱더 확장하야 조선문화에 막대한 긔여를 하리라하거니와압흐로금년도 예산으로발행될서적은 아래와 갓다한다。

이은상작 조선사화집(朝鮮史話集高麗篇)
이긔영작 고향(故鄕)
이광수작 군상(群像)
이태준작 제이운명(第二運命)
김동인작 아기네
심 훈작 상록수(常綠樹)
심 훈작 직녀성(織女星)
차상찬작 해동염사(海東艶史)
이은상작 설악산긔행문(雪嶽山記行文)

以上은 벌서 조선문단을 빗내고잇다。

創立後二十星霜 步武堂堂한發展史

朝鮮文化運動史上에莫大한影響

금번에 증축락성을 보게된 한성도서주식회사는 지금의현상으로서만 조선문화사업계의 권위일뿐아니라 가장오랜역사를 가지고잇는점에서도 그러하다。 지금으로부터 十七년전 기미운동이 일어난그때 조선인의각성은 어느방면에고 그찬란한봉곳이 피여나지안흔곳이 업섯거니와 이회사도 문화발전을 목표로하고、고이봉하(李鳳夏)장도빈(張道斌)허헌(許憲)김주병(金柱炳)제씨를 중심으로한 열성잇는소장들의 조직으로 생겨낫다。 당시에 잇서서 경향각처의 성원이란 참으로굉장하야 자기를이저버리고 이사업에 헌신적으로 투자또는 투신한이가 실로적지안헛거니와 현재사장 리종준(李鍾駿)씨를 필두로 한규상(韓奎相) 리창익(李昌翼) 김상은(金相殷) 김학제(金學濟)등제씨의노력은 과연 조선사회에서 드물게 보는바이다。 그리하야 나날이 닥처오는 내외의간난신고와 싸워가며 조선인의손으로된 아름다운 이긔관을끗끗내 살려가고 키워가려고협성을다하야오던중 지난가을에 공진항(孔鎭恒)이선근(李瑄根) 홍리표(洪利杓)삼씨의 새로운 협력을어더 더욱더 찬일하는 새기운은 것잡을수업는 현상이다 이제야말로 반석우에 터를닥고 의기양양하게 발전해나가는 동회사는 과거보다 몇백배의찬란한 장래를 가진것이 명약관화의일이라하겟다

月刊雜誌 學燈 定價十錢

增築落成紀念으로 新舊書籍廉價提供

文藝、歷史等朝鮮書籍을具備

漢圖의特別奉仕期間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영업부에서는 금번 사옥증축락성을 긔념하기위하야 전내 각종서적을 할인제공하기로 결정하고 방금판매중이다。 동회사에서 발행한 서적은 실로 삼백여종에 달하엿스며 영업부의 판매성적만도 매일 평균매상고 五백원을 초과하는 현상인바 그동안은 실로 영업부에 주력할 여가가 업섯스나 금번부터는 각부의 일치발전을 도모하고 영업부까지도 대확장하야 일반독서가의 서적구매에 유감업시 응하려고하는모양이다。

이가티 서적으로부터 각종잡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만권서적을 비치하고 독자들을 대하는바 일반에 사은적의미에서 갑싸게 판매하는 시기를 제공한다는것은 참으로 엇기어려운 긔회이다。

十年以上勤續者 十餘名褒賞

더구나 이회사는 지난년말에 십년이상 근속자를 표창한사실이잇거니와 사원이십명 직공백여명중 십년이상근속자가 십여명이오 오년이상근속자는 칠십여명을 산한다하니 동회사의위신과 권위를가히 짐작하[illegible]도한 밋는사실이라 하

輪轉機設置 印刷能率向上

斷然印刷業界의霸王

한성도서주식회사의 二十년력사와 금번 증축락성의소식은전긔한바와갓거니와 동회사인쇄부의 인쇄는 사계에제일로정평이잇슬뿐아니라 정밀、신속、화려등 특색잇는존재를 더욱후렷이 하기위하야 만여원가격의 고속도륜전기(輪轉機)를 새로구입하고 인쇄의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잇스니 일류직공의정밀한기술과 서로합하야 실로장관을이룰것이 의심업다。

특히 조선각방면의 월간잡지등은 동회사에서 인쇄발행치안흔것이 하나도 업슴이 사실인바 현재도 오십여종의 잡지를 인쇄하며 또 총판매하고잇다。

出版界의壓倒的人氣를集中한本社發行의良書紹介

自一月一日로 至二月十五日 本社社屋新築과事業革新을自祝키爲하야滿天下讀者에게特別大割引提供

沈熏作 永遠의微笑
[illegible]
四六判700頁 特價¥1.00 定價1.50送料10

金東仁著 短篇集「감자」
[illegible]
四六判200頁 特價¥.50 定價60送料¥0.04

韓仁澤著 旋風時代
[illegible]
四六判500頁 特價¥1.00 定價1.20送料¥.08

李殷相著 朝鮮史話集
[illegible]
四六判280頁 特價[illegible] 定價1.00送料¥03

李泰俊著 短篇集「달밤」
[illegible]
四六判280頁 特價¥65 定價¥80送料¥06

李光洙著 長篇小說「흙」
[illegible]
四六版700頁 特價¥1.70 定價2.00送料¥04

李殷相著 鷺山時調集
時調를말하면鷺山을말하고鷺山을말하면時調를말하리만큼鷺山은時調作家로서第一人者이다。이册은著者가心血을傾注한作七百餘首를모은것이다『鷺山時調集』이發行되자初版再版이다팔리어서지고、[illegible] 朝鮮文學을알려는이는이册을읽으라。
四六判100頁 特價¥50 定價¥70送料¥04

金台俊著 朝鮮歌謠集成
[illegible]
菊判200頁 特價¥70 定價¥80送料¥03

李順鐸著 最近世界一週記
延專敎授李順鐸先生이世界를一週하면서보고들은바를 朝鮮日報에掲載되어數萬讀者의興味의中心이되엿섯다。世界一週를뜻하는분은勿論、[illegible] 世界有無名의山川과風俗思想과文物을상고하기에는이册뿐이다。
四六判412頁 特價¥100 定價1.20送料¥03

韓龍雲著 임의沈默
[illegible]
四六判170頁 特價¥1.20 定價1.50送料¥06

時調노리(一名歌鬪)
[illegible]
極美麗二度刷 特價¥1.00 定價1.20送料¥03

李光洙著 革命家의안해
[illegible]
四六判 特價[illegible] 定價[illegible]

吳天錫著 世界文學傑作集
[illegible]
四六判300頁 特價¥70 定價¥100送料¥06

田榮澤著 殉敎者
[illegible]
四六判170頁 特價¥40 定價¥50送料¥04

金億譯 忘憂草
[illegible]
四六判190頁 特價¥50 定價¥70送料¥04

李勳求著 朝鮮農業論
[illegible]
四六判170頁 特價1.20 定價1.50送料¥10

沈宜麟著 朝鮮童話大集
[illegible]
四六判230頁 特價¥70 定價1.00送料¥08

金億著 現代模範書翰文
[illegible]
四六判230頁 特價¥.6 定價70送料¥06

徐相天著 現代鐵棒運動法
[illegible]
四六判100頁 特價¥50 定價¥60送料¥06

盧子泳著 靑空洗心記
[illegible]
四六判100頁 特價¥50 定價¥80送料¥04

玄濟明編 世界名作歌曲集第一輯
[illegible]
四六判63頁 特價¥80 定價¥1.00送料¥06

著者	書名	定價·特價·送料
文藝		
李允宰	文藝讀本(一二卷)	[illegible]
李光洙	一說春香傳	[illegible]
金億譯	나의懺悔	[illegible]
李相[illegible]譯	海의婦人	[illegible]
盧春城	漂泊의悲嘆	[illegible]
鄭然圭	理想村	[illegible]
鄭然圭	魂	[illegible]
金[illegible]譯	설은이야기	[illegible]
李光洙	端宗哀史	[illegible]
金億譯	沙上散華	[illegible]
李相壽譯	人形의家	[illegible]
李孝石	露領近海	[illegible]
崔鶴松	血痕	[illegible]
李箕永	民村	[illegible]
李光洙	開拓者	[illegible]
李光洙	無情	[illegible]
李光洙	再生(上下)	[illegible]
李光洙	麻衣太子	[illegible]
李相協譯	海王星(上下)	[illegible]
李光洙	李舜臣	[illegible]
尹白南	大盜傳	[illegible]
詩·詩歌		
崔南善	時調類聚	[illegible]
金東煥	國境의밤	[illegible]
金億	岸曙詩集	[illegible]
金東煥	昇天하는靑春	[illegible]
朱耀翰	아름다운새벽	[illegible]
崔南善	百八煩惱	[illegible]
金億	民謠詩集 금모래	[illegible]
金素月	진달내꼿	[illegible]
金億	봄의노래	[illegible]
朝鮮詩人二十八人集	朝鮮詩人選集	[illegible]
金億譯	일허진眞珠	[illegible]
李眕彦	行程의愛愁	[illegible]
金時弘譯	빠이론詩集	[illegible]
金時弘譯	하이네詩集	[illegible]
歷史·傳記		
李允宰	聖雄李舜臣	[illegible]
漢城圖書株式會社	世界名婦傳	[illegible]
同上	루소	[illegible]
同上	한니발	[illegible]
同上	成吉思汗	[illegible]
同上	프랭크린	[illegible]
同上	데모쓰테네쓰	[illegible]
同上	크롬웰	[illegible]
同上	가리발지	[illegible]
同上	東明王實記	[illegible]
同上	타코ㅣ근	[illegible]
同上	짠딱크	[illegible]
同上	웰손	[illegible]
張道斌	朝鮮偉人傳	[illegible]
張道斌	朝鮮英雄傳	[illegible]
崔南善	朝鮮歷史	[illegible]
政治·經濟·法律		
裵成龍	朝鮮農村研究의準備知識	[illegible]
裵成龍	朝鮮經濟의現在와將來	[illegible]
金佑枰	金融組合論	[illegible]
姜羲永	日鮮文詳解改正法律	[illegible]
宋完植	法律寶鑑	[illegible]
地理·紀行		
崔南善	金剛禮讚	[illegible]
崔南善	白頭山覲參記	[illegible]
洪秉璇	丁抹과丁抹農民	[illegible]
朴玄環	表解朝鮮地理	[illegible]
崔南善	朝鮮遊覽歌	[illegible]
張之亮	滿蒙과熱河誌	[illegible]
李勳求	滿洲와朝鮮人	[illegible]
李勳求	滿洲와朝鮮人	[illegible]
姜羲永	最新改正朝鮮區域一覽	[illegible]

總發行所 京城府堅志洞三十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特殊論文

古典研究의 方法論

文化遺産에 對한 批判的 態度

③ 李淸源

一例를든다면 三國史記나 三國遺事等에 처음으로 發作된法律의 嚴密한 本文을 包含하고잇는것들은 完全히 史料로서使用할수잇슬것이다。그리고 普通우리들이 漠然하게 古典이라고하는中에는 年代記、傳記、自叙傳、同時代人또는 古代人의 記錄、同相記、日記、政治的著作

論

等의 主質을 가진宗敎的著作、同時代人의著書及 外國人의記錄等으로 區分할수잇스며、年代記라고 하는것은、諸事件에對한年代的記錄을 指稱이며 여기에는 諸事件이 若干의 集團의 個人의 記錄이 一定한해(年)에 關聯하야 組成되야잇고 따라서 이런記錄들의 總體는 單純한年代順으로 配列되여잇는것이다。그리고 이年代記에 잇서서는 더욱히나그 原始的記錄은 徐徐히 個人의宗敎的 傳說、聖者傳 法律的記念物等이 結付되여잇는것이다。그後의 編纂者는 個人的傳說의 基礎우에、또는他人의口話의 基礎우에되는 自己自身의 記錄에依하야 그先行者들의 記錄을 繼承하는것이다。年代記의이와가튼 複雜한 組成은 그個個의部分을 確立되는事實의 知識에對하야서도、이事實의 歷史的 確實性에 對하여서도、疑問的態度를 取하게하는것이다。

그리고 傳說이라고 하는것은 編纂者의 個人的追憶、口碑的傳承等을 基礎로 編纂한것이며、政治的著作은

選

撰方法에 關한 傳承의 特殊形態로서 認定하지 안흐면 아니되다。勿論이外의모-든古典도 政治的氣分 感情、反感에 依하야 쓰이워잇스나 다시말하면 이미確認되는바가티 모-든歷史的 叙述은 不偏不黨의事實의 記述者가아니나 그中에도 이政治的著作만치 그潮流가明瞭히 그누구의눈에도 反映되는것은업다。달은모-든 歷史的叙述은 그背景에는 꼭 歷史的資料가잇서서 이것을 土臺로 그우에 自己들의 비유에맛처서 叙述하나 이政治的著作에 잇서서 決定的意義를 形成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背景에는 政治的理想이잇고 그政治的理想에 相應하야 資料를 選擇한다는것이다 그럼으로 이때에잇서서의 歷史的 모-든材料는 編纂者의 主要한目的에 相應하는 限에잇서서만이、이 政治的著作에 吸收되고 잇다는것이다。一例를 든다면 今日은 벌서 그正體가 明白히된 三峰鄭道傳의 行爲가 于朝年代記에는 許容할수업는『逆賊』으로 쓰이워잇스나、그事實인즉 國家에의『逆賊』이 아니고 太宗個人과의 世子問題를 中心으로한

利

害關係의、相違로부터 그러케 되엿다고 하는것과가치、이때에 잇서서 太宗은 自己의 政治的野望＝理想에 相應하지안흔、建國에 잇서서 잇지못할 功臣으로서의 三峰을 國家의 逆賊이라는 일홈으로 그들에게一大쿠레타를 斷行하고 딸아서 그러케 宣言하는데 依하야 三峰의 叙述한 許多한 文獻이 無言中 三峰은 本朝의 잇지못할 功臣이라고 말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그를 于朝年代記에는 逆賊으로 썻는것이다。또 이政治的著作은 自己들의 主要한 目的에만 相當한다면、容虛한 事實이라도 自己들의 尺度에 맛추어 歷史를 僞造하는 事實이 만히잇는것이다。一例를 든다면 三國遺事의 檀君은 單純히 平壤에 一回나하엿는것이나、封建李朝에와서의 檀君은 한國의統一的民族의始祖로 登場하엿는것이나。

그리고外國의文獻、따라서中國의文獻는、그들은 自己들과何等因緣이업는 이朝鮮社會의 暗黑面의隱蔽에는 何等用意하지안흠으로 그文獻들은事實에가까운確實性이잇다고하는 사람도잇스나 이것은 何等科學的根據가잇는理論이라고 보기에는困難하다。勿論外國의 그中에도中國의 文獻은 尊重하여야하고 또

興

味잇는만흔 資料를 提供하고잇는것만은 儼然한事實이며 딸아서 이나라에잇서서의 絶對主義的 敎育을바든 歷史家諸公들의 實證主義的、實用主義的모-든報告、叙述보담은확실히實에가까운點이만흐나、이條件은그들이 完全히客觀的 科學的 觀察者로서、나타나고 잇는것을 保證하고잇는것은 아니다。外交的、宗敎的、政治的 其他의動機는 外國人을 事實의 傾向的歪曲으로 引導할때름이라는것이다。그럼으로우리들의 古典에 對한 基本的態度는 오즉 疑惑的 批判的이라는것이다。

그리고 以上에서 우리들이 번가려 强調한바와가튼 歷史硏究의 黨派性은 一定한限度로 그術語까지 制約한다는것이다。在來學者諸君은 朝鮮史를 硏究할적에 이朝鮮의 歷史的 發展過程에 該當하는 原始社會、奴隸所有者的構成、封建的構成、資本主義的構成等으로 社會構成的인 區分과、그用語를 使用하지안코 上古、中古、近古、近世따위의意味不適한 애매한 낡은 術語를 그대로 使用하고 잇스며 이것은 그들

東

方禮儀之國의 光輝잇는 行商인 家父長的 秩序의 자랑이며、그럼으로 적어도 科學的術語를 쓰는것은 三綱五倫의道德에 違反되는 同時에 크다-란 수치라고 生覺하고잇는 이것은 멧百年前에 지내간 時期에 잇서서는 天才的暗示하엿스나 적어도今日에잇서서는斷然的發展의 階段을 確保하려는 가엽슨 現象이다

以上은 結論上關係로 不充分한分析이엿고 더욱히나 우리가

具

體的으로 分析하여야할것은바『朝鮮的特殊性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今日이땅의 獨自的인것과 엇던 關聯을 가지고잇는가? 朝鮮의 各古典에 對한그內容構成에 關하야 當然히 究明하여야하나、이것은 後日다른機會로미루고 그러고 이古典硏究는決코 그것만으로서 朝鮮의 歷史過程의 一般合法則性과 그發展의 具體的 特殊性을說明할수업스며 따라서 畸形的인生産關係의 一定의體制로서의、朝鮮의 現實을 完全히 復寫하고 그體制아래에서、經濟的發展의 指示하는秩序로부터의 活路를明白히 하지못한다。

歷史過程의 辨證法이抽象的學術的 用語로부터、한개의새로운 具體的인 산事實로나타나는것으로 正確히 說明하기爲하야서는 人類學、考古學、土俗學、言語學 民俗學、工藝史等의 補助科學의 힘을빌어야되는것이다。

더욱히나 原始社會의硏究는決定的으로 이것을證明하고잇는것이다。即朝鮮의 傳說的인全太古史를사고도는 무거운暗黑 따라서더욱 後世에와서의

絶

對主義的敎育을 바든 文獻學者諸公들의合理的主義、實用主義的解釋報告에依하야 이暗黑은일층더甚하여지고 잇는現象에 잇서서야。

그러나 이것은우리들人類學者 考古學者 言語學者 民俗學者、工藝學者가되라는것은아니다。이것은到底히 不可能한것이며 萬若이것을强要한다면 그때우리들은 歷史硏究家가아니고 한개의 手工業者에不過할것이다。(完)

東京文壇의 近貌

行動主義를中心삼아

③ 金文輯

眞實이냐? 가장 實證的인眞實!」이라고한것을 極端한方向에서歪曲되게使用하고잇는 根本들이라할것이다

要컨댄 그들은危機的現段階의 客觀的情勢로부터 招致되는『轉向』大流行의 渦中에서 그의階級的情緖와 自己反省의內部에서發見되는 懷疑와煩惱! 甚至於는

自棄

가운데에 文學的眞實을永遠히 監禁하려한다。그리고 藝術上에잇서서의 客觀的眞으로서의 리아리즘의根底를 그가운데두려고한다。이얼마나 嘆息할바이냐?!

우리는勿論 藝術은 論理性을 絶對的條件으로삼는 다른學問과는달니、感情을形象에依하야組織한다는特殊性이잇는이만치 그것은實踐的인體驗을 第一의生命으로삼는다는것을 決코否認하지안흐며、둘재로 一定한 藝術家가 그의天分을抹殺할理外라、說道的政治家로서의 한개失敗된漫畵를 提示하는、말하자면『政治와 文學』의公式的解釋의 어리석음에對하여도 充分한認識을갓고잇다。

그러나『文學的眞實』에關聯된 前記命題를 愼重히생각하여볼때 그것은벌서 푸로레타리아文學의 發展過程에잇서서 이미誤謬되엿슬터인、그리고 國際的으로斷罪되엿슬터인 巨大한 誤謬의根源이나아닌가!

不絶히뒤떠려지고잇는 大衆의 心理와意識을 그의水準에까지誘導 上昇식히고 그흐름에의能動的役割을促進하는곳에 現今푸로

藝術

의至大한 役割이잇는것이事實이라고하면、압헤서말한바와갓흔 文學的實踐에잇서서의 觀照的態度는 하로밧비 淸算되지안어서는 아니될것이다。

昨今 世所謂『轉向文學』이란것가운데 만히나타나는 인테리의 混迷된心的狀態! 그것의抽寫가 果然 무엇을意味하는것인가를 나는알지못한다。이는決코 우리들의作品은『해피・엔드』니에만할것이라는것을 意味하는말이아니라、現今과갓흔 過渡期에잇는 文學의特質이라는것을 生覺하여볼지라도、當該作家는 그의藝術的意慾으로서、『混迷』의압길에對한 解決的意見의 提示라는것이 宿命的으로 强要되면서잇다는것을 意味한다

文學的實例를 東京文壇에서取한다할지라도、島木健作의諸作이 도스터이엡흐스키ー的仁義의 呼吸이多分히 律動하면서도 우리에게 肉迫하는힘이잇는것은 그가自己眼界內에서의 無批判的取材를行하는것이아니라 時代的主流와의 照明에서 그를

選擇

하며 또한그의藝術的形象化에잇서서一定한方向으로整理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에렌불그』以下한다ー스』의聰明한解釋者들을 周圍에따르게한 人間『지ー드』의行動의曲節曲節。一九三四年八月十七日부터 十五日間『모스크바』에서 열린第一回全『소』作家聯盟大會에보낸病床에서의그의『메세ー지』ー全佛蘭西的討議의 對象。例의 二月騷動滿一週年記念에際하야『文學』이란 像牙塔的詩篇을忌嫌하고 藝術의功利的目的性을 새삼스럽게 宣言하는一便、N・R・F誌에論文

『政治와文學』을發表하야

『지ー드』의轉換을보다더決定的으로 影響주는『페르낭데스』(그自身은轉換을宣言함이어서『마르로ー』와아가『소』聯作家大會에 出席까지햇다)의『지ー드』에게보낸 公開狀의權時期的意義。新『지ー드』主義의根底? 그는(Individualisme Communiste)엿다。(『부르조아』文化의擁護인 自由主義의敎養이 가장두터운 佛蘭西가아니고어찌의『지ー드』의『個性을가진 人間本位의 共産主義』가 存在가되엿슬가。)『크레미유』의 理論的『에스푸리』를呼吸하고『征服者』『人間의條件』等을『공쿠르』賞아래서產出한 今年三十四歲의 鬼才『마르로ー』의 非絶望的絶望의文學的過程。그리고『個人의이름으로부르는『부르조아지ー』에對해서 콤뮤니즘은 人間의이름으로 부를것이다!』라는 意志的詩句를가진 그의『소』聯作家大會의報告書。尖塔『끄식』의、古典的雄篆美를 禮讚햇서인지 尊嚴한 寺院의『라베스로리』압헤업드려 默禱의 詩篇을 읊는 老『글로ー델』이라거나 二十世紀的 自意識의權化인『따빈치 方法論序說』의著者라는 理智의 月桂冠을머리한편에 어뻑따하게씀으로 말미암아 일직이翰林院의名譽로운椅子하나를供待바든『폴・바레리』가튼 兩班들을 不疎不觸의距離에 모서노코

進步的智識 階級의文學

的表現機關인N、R、F(新佛蘭西評論)『Europe』『Monde』等機威誌에 所屬한『빨뷰스』『트보ー데』『뜨류ー』『뻴ー』『뿌록』『E、T、C의 두어『다ー스』의優秀한作家評論家들과 太半은 文壇으로그들의 同僚인 그編輯者들과의『지ー드』的 追隨와 對社會的活動狀態(그들의 太半이『지ー드』自身과가티 時代的이고 畸形的이라는 外觀은잇스나마 一齊히『니ー체』의 哲學的後孫이라는事實은 注目할만한現象이다。웨그러냐하면 이派勢力의 文學的貯水池인『佛蘭西智識階級聯盟』은 그自體의 意義와 性質이『니ー체』의『Übermensch』의理念과 그結實하는바『에피로ー근』가 적어도 現象學的으로는 天動說과 地動說과의相違로서 우리의 觀賞밧기될으로서이다。詰釋的으로 이에 附言하면『드레퓌스』事件以來의 同國의 現代社會學史的 事變인『스타빈스키』事件의 輿論的大衆的效果이例의二月六日 巴里騷動이 該聯盟을 具現케하는데 直接衝動을준것이엇다。)

美術의『가나안』의里인지라 無數의美術家와 彫刻家및映畵人까지包含한이佛蘭西智識階級聯盟은

支那階級의 意志를代表

하는官僚的新聞『르、탕』을 遠景으로背景는 이亦是二月騷動의顯著한副産物의하나인『파쇼・智識階級聯盟』『어、쥬르、로망』가튼 人物을首領으로한 議會政治를 否認하고 右翼的國家革命을 目的하는壯靑年의 結合『七月九日團』을日兵隊로 세우고『勞働總同盟』(GPT)의急進派一部 出征軍人團等을合流식힌『불의十字架』이라는 意味의 團體를主勢力으로 配置하는同時에『마리안느』(至今)이라는週刊機關誌를 發行하는一方『第三力』『新秩序』其他 血氣잇는 新聞雜誌를 그勢力範圍안에 너허서 實行動的으로나 印刷文化的으로나 決然 文學그대로의『팟쇼』를 示威標榜하는 潮水的動勢에 抗拒하기爲해서 積極的으로『로망、로ー랑』『지ー드』의이름까지 그『멤버ー』에羅列된『A、E、A、R』『革命的文學家 藝術家聯盟』과『팟쇼監視委員會』와를 共同的理解아래서 偉急하게糾合하야 反『팟쇼』의智識的大衆運動을 開展하고잇다는許辭……以上記列한無數한 主普節이 한마당에서 構成되는 緊張以上의 눈어지러운現下佛蘭西의 時代的 交響樂을 味得하지안코는 그의『에츄ー드』(練習曲)的『메로듸ー』인 能動精神을 理解할수업슬것이며、그(能動精神)藝術的表現인 行動主義文學을 佛文學史的으로 排解치못할것이라고생각한다。

쏘시알리스틱

레아리즘提唱後의 朝鮮文壇의 趨向

③ 安含光

그러면『文學的眞實』이란 具體的으로 무엇을 意味하는것이냐? 여기에서 이에 關한 作家들의 短片語가 말하는 全體的 雰圍氣를

綜合

해본다고하면、甲이란 作家는 酒道樂의 經驗이 豊富하야 그에該當한場面의 描寫가能하고、乙이란 作家는 肺結核의辛苦를맛본일이잇서서 特히肺結核患者의 心理描寫가 切切하고、丙이란 作家는 農村生長이어서 農村의 情況을 細如하게 提示하고、丁이란作家는 그의 工場勞働者의 經驗으로 말미암아 工場勞働者의 形象化가 成功的이엇든것이니、作家는 모름직이 自己의 體驗하는바를 率直히 그려나가는外에 別달리 神通한 方途가 업는것이며、따라서 朝鮮의인테리作家들은 그들의 脆弱한神經으로는 堪忍할수잇지도못한 政治的實踐에對한關心은가질것도업시 그들이體驗하는바의모ー든것을 잇는그대로、보는그대로、그려라(!)……이것이아마『文學的眞實』을 中心으로한論議의主潮인듯십다!

이는 政治와藝術과의 關係를 그의獨特한 파라독시칼한言說로서 公然히斷絶해버린 林房雄의 宣言이라든가 最近東京文壇에서 有力한文學部隊를 形成하고잇는 轉向派一群의 共通的인命題 藝術家는

書齋

에잇서서의創作的修業의累積에 依하는外에 달니高度한世界觀의 獲得의길을가진수는 업다는等의 亞流的見解와決코無緣될수업는것이니 이리하야 그들은 作家를그繩하는바現實이 社會主義的體制인가운데서提唱된 구론스키ー의 다음의命題『眞實을그려라!』어떠

正音發達史序論

訓蒙字會의 考證

③ 方鍾鉉

一、中聲、字를 使用한것은 三本共히 同一하나 別本及光文會本은 그用法이 城大本과 不一하야 曬字의 색임을 다르게하엿으니 前者에는『솨셔』하엿고 後本에는『샐셔』하엿다 이것이『사와서』의 音上으로 相近된音을 말해주는 一證도 되지안는가하야 ㅏ와、ㆍ의 音의硏究에一助가 될는지는 未詳키니와、그러나 楞嚴經 其他 諺解書類의 古本에는 모두『새』로되엇는것을 보아서 城大本이 雛正하지안는가한다。이 訓蒙字會에도 이、ㆍ字를쓴것이 五百餘語의 使用例가 잇는마큼 이、ㆍ音硏究上 重要한資料임을 是認치안을수업다

一、다음으로 글字들가운데에서 가장 顯著하게 相違된다고생각되는글字를 몃字摘出하야 比較하여보면

	城大本	別本及光文會
[illegible]	다몰롱	다목소
寅	둘이헝	둥이헝
榜	밧 방	바아바
[illegible]	변	[illegible]

이와가튼 大差異를 發見하게되고 더욱이 光文會本이 第一만히 誤錯의點을 가지고잇다고 생각하게되다 그것은 光文會本이 最近刊行本인만큼 別本을 그原本으로 삼게 되엇스므로 別本보담도 잘못된 글字가 만흘것은 到底히 避치못할 事實이리라고 생각하는것이 當然하다 그러나 光文會本이 果然別本을 그原本으로 使用하엿는지 안엇는지를 몬저 考査치안코는 斷定키難한것이므로 여기에 數字그例證을 들고저한다 上擧된 四字의例를 보아도 짐작되는것이거니와 그外에 第五張後面二行三字인『蘇』字를『자피 믄쏨』이라고 別本及光文會本에 달어노핫으니 그것이 무슨 意味인지 도모지 알수업는것이되어 이字를 城大本에 차저보면『자핏믈쏨』이라고 한것을보아 그뜻을 알게되나니 더욱이 우스운것은 자핏의 핏字가 別本及光文會本에는 피도괴도 아닌것을 여러분이 發見할수잇는것이다 또上卷第二十二張前面末行二字인 ○字의 註에 異常야릇한 모양의字形이 잇으니 玉篇에도 字典에도 잇을理업는形狀의 글字가잇는것을 發見하리니 이것이 別本과 光文會本과는 꼭가트나 그러나 城大本은『必』字가 分明하게되어잇는것을 보아서도 또이밧게 여러가지로 비취어 判本이 光文會本의 原本임을 是認치 안흘수업는것이다 또 이判本即 그原本보다도 光文會本이 錯誤의字數가 만흔것을 우에서 말햇슴으로 이것을 證하기위하야 數字의例를 여기에 다시 加하면 第七六張前面第二行第二字인 鎬字를 城大本別本共히『지비두리합』하엿거늘 光文會本에는『집비두리합』이라고하얏고 또 卷中第二張後面末字인 脩字를 光文會本에는 중승이라고 하엿스나 다른책에는 다 중숨이라고하엿다。이것이 그音의 틀리고 안틀린것은 問題로하고라도 그原本까지도 信用치 안은 一點을 窺知할수잇는것이다。그러면 여기조 우리는 上記事實과가티 玉篇에서도 차저볼수업는 이상한形狀의 글字를 刻人하느니만큼 그原本을 몹시 依憑하엿다는 얼마큼信賴를 가지게하는點도잇스나 그러나 半齒音의 使用이 좀區別되는點과 異體字를 分明히 表示한것等은 이光文會本이 새로 訓民正音體와 同一하다고 그再刊例에 明言함과가티 다른本들과의 異點이다、이와가튼事實로써 나는 光文會本이 別本을 原本삼은것이고 또 그만큼 잘못도만타고 보는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事實을 不關하고 함부로 이光文會本의 誤謬를 資料의 正確한者로 引用하는것은 좀 危險한일이라고 말할수밧게 업다、더욱이 가장큰 差異로서 城大本과 別本及光文會本이 區別되는것은 이책下卷三十五張後面第一行에 두字가 根本的으로 다른字를 쓴것이다 同一한字를 고音이나、또는 同一한音을 그表示形式이 다르게한것과는 全然問題가 틀리는것으니 城大本에는

降水西邊

이라고되엇거늘 別本及光文會本에는

降水浴㳥

라고 되어잇다、그러면 이것이 어떤 關係에서 생기어난 事實일까 한번 생각하지 안을 수 업스나 그러나 이變遷의事實을 말해주는 記錄이 업슬뿐만이아니라 이點을 가지고 이책版의 先後도 測定할수업고 또 처음부터、이책版의先後를 여러點으로 빌우어 斷定하기어려운마큼 이와가티 差異를 現出하게되엇 內容의史的事實도 알길이업다

西井里

京釜線西井里驛前 ◉運送株式會社 代行營業所 代表者 李容孫

京釜線西井里驛前 綿布洋靴 メリヤス 朝鮮衣服 洋服製服 和成屋 主 兪鎭都

京釜線西井里驛前 和洋金物 諸道具 農具一機 各種油類 鮮昌商店 主 趙南鴻

朝鮮日報社西井里支局 支局長 趙南鴻

振威郡松炭面西井里 協議員 元濟東

金文煥

京釜線西井里驛前 各種自轉車及部分品 附屬品販賣 修繕一切 西一自轉車店 朴鍾甲

振威郡西井里公立普通學校

京釜線西井里驛前 和信連鎖店

京釜線西井里驛前 司法書士 權榮植 補助者 柳千馨

京釜線西井里驛前 西華釀造場

京釜線西井里驛前 米穀商 西成商會 主 趙成九

京釜線西井里驛前 米穀商 杜陵里產米改良組合

西井里金融組合職員一同

京釜線西井里驛前 米穀商 長安商會

京釜線西井里驛前 車公君醫院

京釜線西井里驛前 酒類製造 漢南釀造場 主 南昇熙

振威郡古德面杜陵里 安禹鏞

振威郡松炭面道日里 金融組合長 元濟昇

振威郡古德面文谷里 精米部 製油部 製麵部 主任 白建基

京釜線西井里驛前 德盛館 主 張慶福

京釜線西井里驛前 中華料理 雙盛園 主 林日紅

京釜線西井里驛前 大正生命保險株式會社 日本敎育生命保險株式會社代理店 朴仁錫

京釜線西井里市場 海陸物產 都散賣業 大和商店 主 林承和 崔慶喆

000063

振威郡松炭面道日里 元道植

振威郡松炭面道日里六九六 協議員 金鍾喆

京釜線西井里驛前 大成旅館 主 宋基浩

京釜線西井里驛前 中央理髮館 主 金仁成

京釜線西井里驛前 各種雜貨 學生用品 和洋菓子 海陸物產 酒類其他 薄利多賣 南相圭商店 良品安賣店

京釜線西井里驛前市場 網紗 綿布 綿織物 都產賣 協盛商會 主 梁正煥 金章烈

京釜線西井里驛前 和洋雜貨 學生用品 文房具 各種菓子 都散賣商 西信商店 主 崔基協

振威郡松炭面芝山里 協議員 柳遠協

振威郡西炭面長登里 米穀商 西昌商會 主 林昌來

京釜線西井里 綢緞布木 海陸物產 和洋雜貨 信元商店 劉元春

京釜線西井里驛前 穀物商 合成商會

振威郡松炭面佳才里 李圭敎

京釜線西井里驛前 油類果物 海陸物產 果物現具 都散賣商 相信商會 主 李相鎬

京釜線西井里 李得珪

振威郡西炭面金角里 趙泰錫

長安里 尹承鳳

振威郡松炭面道日里 振興會長 崔元鍾

河東

河東花開面 龍岡酒造場 代表 姜士遠

河東郡良甫面 實業家 鄭萬鍾

河東良甫面 桶井釀造場

河東良甫面 產米組合 崔命煥

河東良甫面雲岩里 精米業 肥料業 金一商會 金瑛錫

河東郡古田面 職員一同

古田面 古河酒造場

河東郡古田面大德里 助津更生部落 代表 高光碩 李寬景

河東郡金南面 職員一同

河東酒造組合長 辛在佑

河東漁業組合長 金守弘

河東郡辰橋金融組合 職員一同

株式會社 慶尙合同銀行 河東支店

河東產業組合

河東金融組合

河東稅務署 職員一同

河東酒造組合 職員一同

大邱專賣局 河東出張所

河東水利組合 職員一同

喪中欠禮 河東面花心里 余顯幸

河東郡河東面新基里 車命岩

河東雙溪寺

河東郡赤良面 職員一同

河東郡靑岩面長 梁春煥

河東郡靑岩面 職員一同

河東郡靑岩面坪村里 鄭潤喆

河東郡靑岩面坪村里 鄭尙福

河東郡橫川面 職員一同

河東郡橫川面如意里 李東默

河東郡橫川面 尹正禮

河東郡良甫面 協議員 鄭大鎔

謹賀新年

瑞山

大正生命保險 日本教育保險 株式會社 京南支部
大田春日町 支部長 柳聖植

江景出張所
江景邑西町 所長 朴英來
監督 李錫熙
監督 朴炳南
監督 鄭琓好
書記 朴喜昌 同 徐玄横
同 金海雄 同 金吉萬
同 朴培玉 同 李煥英
同 李東龍 同 朴公求
同 李德奉 同 朴永男

京南支部瑞山監督所
瑞山邑 所長 崔起鏞
監督 李廣舜
書記 柳順植 同 文明玉
同 金龍煥 同 李元泰
同 金錫興 同 李廣業
同 崔炳彧 同 安大淳

安眠面承彦里 安眠代理店 主 朴炳建
海美面 海美代理店 主 崔世鏞
唐津邑 唐津代理店 主 吳榮根
洪城邑 洪城代理店 主 尹明基
高北面機池里 高北代理店 主 金東圭

忠南瑞山 朝鮮料理 元祖 **明月館** 主 徐光先
藝妓 車竹葉 藝妓 李玉花 藝妓 朴芙蓉 藝妓 金香心 藝妓 趙桂月 藝妓 李松竹 藝妓 鄭鶴仙

忠南瑞山 西洋料理 支那料理 **君乃屋** 主 中山キミノ
藝妓 金蓮花 藝妓 金榮華 藝妓 金瓊月 藝妓 李元淑 藝妓 全点紅 藝妓 趙牧丹

忠南瑞山 朝鮮料理 元祖 **富成館** 主 金生植
藝妓 金紅桃 藝妓 金珊瑚珠 藝妓 朴綠珠 藝妓 黃錦仙 藝妓 洪[illegible]

海美 有志 申奎鉉
大山駐在所
海美面良林 有志 韓相愚
忠南瑞山 三省自轉車店 主 柳瀬田
泰安金融組合 安眠支所
忠南瑞山 島村仁助
忠南瑞山 菓子 食料 李鍾錫商店
瑞山 赤井芳水
安眠面 正堂釀造場
安眠 姜泰愚
瑞山고무商會 李命福
地谷 金相現
大山 金東潤

忠南瑞山市 絹布商 **和商會** 張淳貞 李炳和 振替口座京城二四四八四番
瑞山郡 面事務所職員一同
忠南瑞山 **瑞一百貨店** 主 金一出
忠南瑞山 自轉車 附屬品 小賣 修繕 **華林自轉車商會** / 貨物運搬 **華林貨物自動車部** 主務 尹敬國
瑞山郡公立學校長一同
瑞山郡公立學校職員一同

浮石 柳炳爽
營業 瑞山樂隊
忠南瑞山市 寺社調製 金銀細工 禮興時計店 李敬鎬
忠南瑞山邑 精米業 崔漢鏞
瑞山 朴仁性
忠南瑞山 李完福商店
學校組合管理者 小田與市郎
瑞山釀造場
八峰 安相穆
聖岩 富安正人
八峰 梁承玹
浮石 金陽煥
李龍基
金鼎濟

瑞山 上島馬之助
忠南瑞山 陶器 漆器 和洋雜貨 李錫求商店
海美酒造場
瑞山郵便所長 川瀬渡
瑞山金物店 主 金學祚
瑞山 趙昌柱
忠南瑞山邑 海産物 各種果物 卸散賣商 廣興商店 李命求
瑞山郡余美 雲山釀造場 尹命秀

泰安 有志 李時雨
泰安 有志 白南復
瑞山郡梨北面馬山里 賈秉俊
瑞山郡梨北面馬山里 賈秉玉
忠南瑞山 綢緞 布木 和洋雜貨 白商會
ライジングサン石油株式會社仁川英油組合 瑞山販賣所 趙玉顯 李廣龍
瑞山郡雲山面新昌里 新昌釀造場 金龍煥
瑞山郡雲山面龍賢里 有志 權重一
瑞山郡農會 瑞山郡守 尹建鏞 瑞山郡內務主任 兒玉正爾 瑞山郡庶務主任 林漢洙
忠南海美 海美自動車組合
百貨店 金子屋

瑞山邑內 辻藤房 李鍾[illegible]
仁川朝鮮海陸代理店 ㊉鴨川運送店 金洛觀 具[illegible]
忠南瑞山 千代田生命保險相互會社 瑞山駐在外務員 田泳敦
忠南瑞山 大同生命保險株式會社 瑞山代理店 主 邊貞潤 社員 金東益
忠南瑞山 泰安商會自動車營業所 ㊁瑞山運送店
瑞山郡 雲山추릭 井元勇馬 張基東
所遠 泰正獻
海美 申泰利
海美 李敬熙
瑞山郡所遠面新德里 金東淑
瑞山郡所遠面新德里 朴淳敦
忠南泰安市 崔元錫
忠南泰安市 金應濟
瑞山郡淳北面大基里 趙棟顯
瑞山郡梨北面官里 李庸德
梨北有志 李奎夏
梨北有志 李起商
梨北面 有志 趙泰鎬
泰安面島內里 有志 金圭恒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瑞山支局**
泰安商會專務理事 顧問 韓東壁
顧問 李相勳
瑞山消組理事 顧問 金樂賢
瑞山釀造場主 顧問 羅昌憲
顧問 朴友性
邑會議員 顧問 洪悳裕
顧問 李珍雨
顧問 田泳爽
瑞山支局長 申恒均
記者 金順弼
共榮電氣商會主 營業兼記者 尹道俊
映畵班 李根煥
泰安分局長 金東珍
海美分局 金漢植
高級映畵定期巡廻 向上映畵社

泰安 尹源淑
泰安郵便所長 藤戶次郎
忠南泰安 至誠醫院 鄭夏鎔
忠南泰安市 山內泰二
忠南泰安 光榮アル昭和十年ヲ送リ 芽出度昭和十一年ヲ仰ク 高橋佐右衛門
忠南泰安市 司法書士 李華鶴
瑞山郡梨北面內里 田在鎭
瑞山郡梨北面 有志 梁斗煥
忠南泰安市 相信洋服店

瑞山郡所遠面新德里 李圭玹 醸造業 李圭瑛
瑞山郡近興面 崔南鍾
瑞山郡淳北面 遠北面長 趙廷鎬
瑞山郡梨北面 有志 趙詰鎬
泰安金融組合 職員一同

統營

統營邑鷺町 海産物 鮮魚商 宋秉文
統營鍋子製造組合理事 統營酒造株式會社專務 邑會議員 卓應朝 電話五二番
遠梁面東港里 有志 全在國
統營郡長承浦港 長承浦 和信連鎖店 主 尹介金
龍南面長 鄭樹天
遠山面長 孔權洙
統營邑道泉里 川洞殖産合名會社 代表 韓溪生
統營龍華寺 主持 金晶河 法務 朴鎭孝 財務 金達山
統營邑郵便局前側 文友堂百貨店 振替九二五二番
慶南道會議員 藤田熊吉
慶南道會議員 坂倉浩
統營郡職員一同
巨濟邑長 河倬源

東港里酒造場 金在國 金錫河 金性俊 金性佑
東部面長 金憲洙
閑山面長 朴鍾厦
山陽面長 金炳柱
光道面長 金宗甲
統營邑會議員 鄭箕淳
巨濟漁業組合 理事 木村判六
閑山漁業組合 組合長 鄭榮銀 理事 盧翊守
統營邑明井里 鑛業家 朴喜鎣
統營海底路側 朴泰祐酒造場 電話一三二番
彌南里華陽講習會 會長 金南鎭 財務 劉甲英
統營邑曙町 釜山商會 主 鄭自述
金赫求釀造場 主任 全炳然
遠梁面東港里 漁業家 金己鳳
統營金曜會
統營連會
統營會館 主 川崎大五郎 外女給一同
統營邑會議員 李太奉
統營邑會議員 山根才吉

統營邑會議員 嘉戶孫十
統營邑會議員 兒玉鹿一
統營邑會議員 島村新平
統營公立水産學校長 名越正廣
統營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統營公立普通學校長 西畑定治
統營郵便局 職員一同
慶南漁組聯合會 統營出張所 園田稔惠
二運面協議員 辛龍權
二運面協議員 尹智善
東部面協議員 梁泳赫
東部面猪仇里 警察官駐在所
知世浦習永講習會長 朴常根
東部面加串里區長 鄭道銘
長承浦三共商會 主任 裵化祚
二運面鷲陽里 陳在守
東部面加串里 漁業家 朴水永
東部面加串里 商業家 許判守
欲知漁業組合 理事 小野寺著義
老大里永興講習會長 孔泰兼
遠梁面協議員 薛章彦
遠梁面老大里 酒造場 鄭龍寬
東港里 布木商 金智現
遠梁面東港里 金六官
二運面玉浦里 漁業家 陳正律
二運面協議員 陳命植

統營郡遠梁面東港里 金秉植
山陽面美洙里 光新夜學會
朝日町 明濟醫院 金明吉
統營邑吉野町 泰世眼科醫院 李光吉
統營邑吉野町 統營船具商組合
漁業家 金榮洙
統營邑貝塚里 朴性敦
統營邑曙町 金永八
千代田生命保險相互會社 外交員 金奉龍 自宅 統營道泉里
統營邑曙町 精米商 方德均
合資會社 泰信商會 代表 諸泰彦
統營郡棉作改良模範合會理事 金奉敎
道泉里學校精米所 卓錫朝
統營邑大和町 統營螺鈿漆器工藝社 李亨奎
統營邑新町 笠子工場 韓錫烈
싱거裁縫會社 統營分店 劉在德
綢緞 布木 雜貨商 李花商會 主任 李仁祚
統營曙町造場 電話一三五番
吉野町 東屋洗濯店 主 婁壽同
統營邑朴洪商會 綢緞 布木 朴洪周
曙町精米所 張萬祚
昌景旅館 主 金南仁
統營邑數島町 各種雜貨 鄭禎浩
專門 中國料理 東華館
巨濟公立普通校長 杉山龍雲
東部面公立普通學校長 古川三郎
巨濟面協議員 平井竹次郎

謹賀新年

中京唯一 品質 價廉

メリヤス・綿布加工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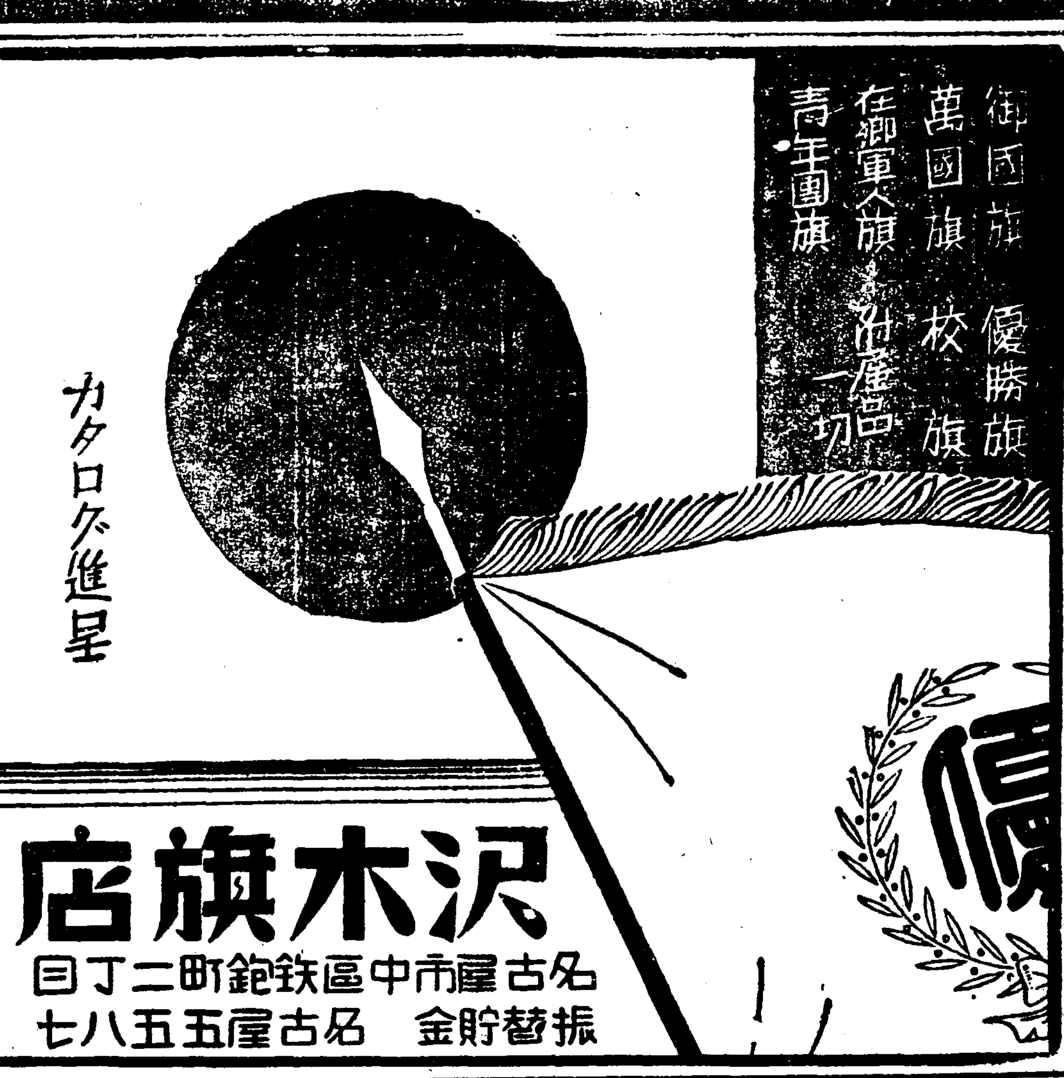
メリヤス百貨 カタログ進呈

百貨問屋

名古屋市中区仲ノ町

矢島商店通販部

電話中一三六九番 振替名古屋一九六一二番



御國旗 優勝旗
萬國旗 校旗
在鄕軍人旗 附屬品
青年團旗 一切

カタログ進呈

沢木旗店

名古屋市中區鉄砲町二丁目
振替貯金 名古屋五五八七

川本式ポンプ

TRADE MARK

一臺에三個所의實用新案을가진

川本式高級新メザメポンプ의出現!!

好評! 只今滿天下의 [illegible]界를 斷然「리ー드」한

「川本式」이란商標登錄입니다 模造品잇스니上記商標에 注意를요함

高所昇進 撤水防火에 最適當品이다

「カタログ進呈」

登錄商標『川本式』ポンプ가이러케도好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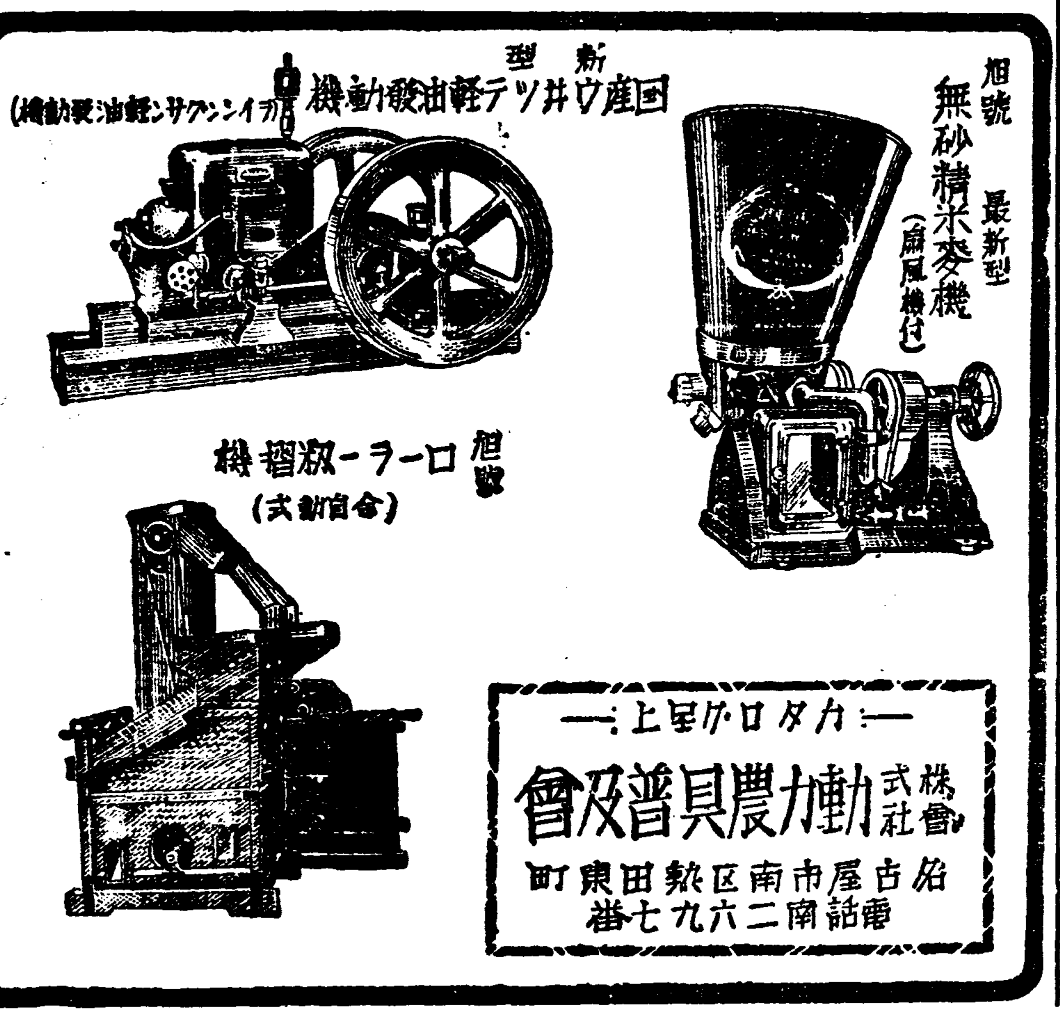
「運轉輕快」하고도「品質本位」「價格低廉」

川本式ポンプ製造發賣元

川本製作所

名古屋市中區大池町一丁目 電話中長(3)〇四四五番
振替口座名古屋二五七七番 受信登錄略號ナゴヤボンプカワモト

特約店 岡谷合資會社銅物部
名古屋中區鐵砲町一メ



新型 國產ヴ井ツテ輕油發動機 (カイシングサン輕油發動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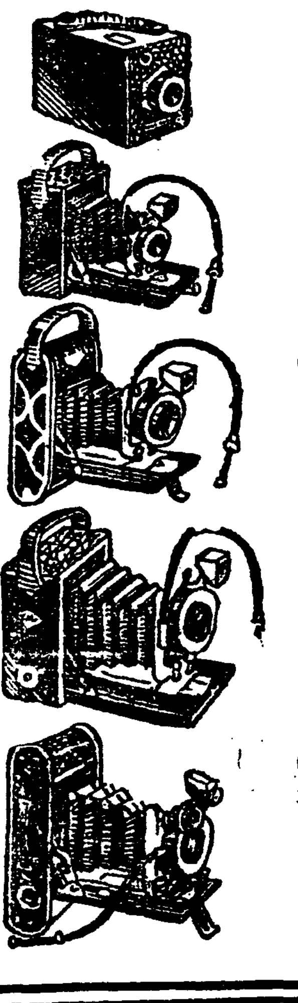
旭號 最新型 無砂精米麥機 (扇風機付)

旭號 ローラー脫穀機 (合自動式)

—カタログ呈上—

株式會社 動力農具普及會

名古屋市南区熱田東町
電話南二六九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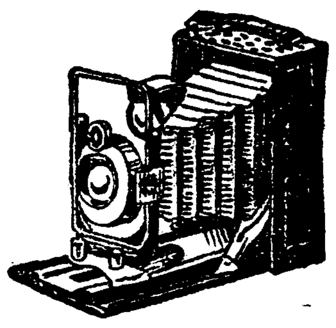
(小箱型) ¥0.15 ¥0.30 ¥0.50

(小ポケット型) ¥0.60 ¥0.80 ¥1.00

(小コダック型) ¥1.00 ¥1.30 ¥1.50

(ベスト角蛇腹) ¥1.70 ¥2.80 ¥4.00 ¥6.00

(ベストコダック型) ¥2.50 ¥3.50 ¥6.00 ¥7.50



プリンス號
大名刺 ¥24.00
小名刺 (A) ¥18.00
同 (B) ¥10.00

代理店의御相談에應함 特約店은一店에限함

名古屋市東區大津町五丁目
製造元 東京カメラ製造所

慶南晋州邑內榮町一四
南鮮代理店 安洞商會

●カタログ는要二錢切手
●仕入은直接製造元으로부터
●商報請求는店名스탐푸捺印하서서申込하시옵소서

產地唯一陶器の通信販賣

日本一安い日鮮陶器卸問屋

日鮮陶器仕入의好機初春特價大賣出

鮮陶器連鎖店募集
사기그릇이면무어이나다잇는陶器의百貨店
目錄一冊으로안저서產地取引

小資本開業日鮮陶器店開業指導

綢緞布木食料雜貨米穀荒物金物商의新副業

日鮮陶器의仕入은直接產地로

쪽一枚照會하시라
四百種類記載
寫眞入陶器卸商報無代進呈

岐阜縣多治見町
內外陶器一切卸問屋

ヘ 田中一郞商店

電話七〇番
振替名古屋四一九二一番

新春特價賣出サビス券
本券切取封入御注文에限해一月中商報記載價格에서三步引

正月用防寒ラシヤ製品・小賣時價의半額以下提供

注文
○片紙로注文하시면代金引換으로送呈함
○몸身長體重年齡嗜好等을記入하시오
○不合時는換品又는返金歡迎
○運賃荷造料・全國弊店負擔

名古屋驛北(廣井町二)
合資會社 サービス商會
地方部
電話西四一三七番・振替名古屋一五一六一番

◎寸法鯨尺二三、二四、二五、二六의四種
身長을書添하시면맞추워서보내드림

防寒用 ラシヤトンビ特賣

(466) 黑メルトン本紗天鵞絨衿仕立實用品 10.00
(467) 高級ラクダ・メルトン朱子總裏附仕立 15.00
(467) 最高紳士用ロスキン手縫本仕立本朱子裏 23.00

グランドオーバー

(活動用) (運動用) (オーバー)

(504) 黑厚地メルトンバンド付 5.30
(505) 極厚地霜降ラシヤ特上品バンド付 6.30

寸法鯨尺 20 22 の二種

靑年向 モダン最新流行型 霜降オーバー(兩前型)

兩前型
(500) 厚地霜降ラシヤ朱子裏附 9.80
(501) ベロアー厚地霜降絹セック裏附 12.50
(502) 高級ベロアー厚地塗襯仕立紳士用 18.00
(503) 最高級紳士用ベロアー霜降 28.00

寸法鯨尺 29 30 31 32の四種

高級兩前型ラシヤオーバー

兩前型
(511) 日毛高級ベロア厚地ラシヤ 9.80
(512) ラクダベロアー高級品 13.00
(513) 高級キロットラシヤ 19.00

注文仕立紳士用
以上寸法 鯨尺 29 30 31の三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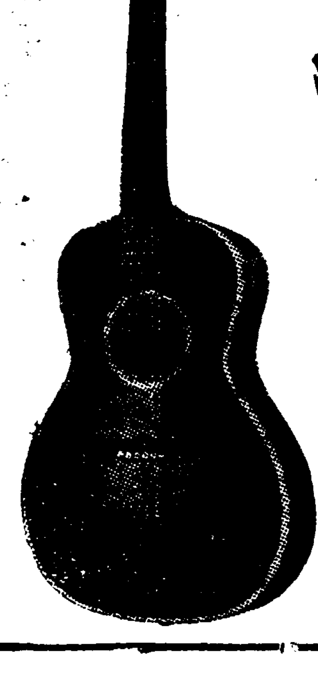
高級片前型ラシヤオーバー

片前型
(508) 日毛高級ベロアー厚地ラシヤ 8.80
(509) ラクダベロアー高級品塗襯仕立・絹裏高級キロット 12.00
(510) ラシヤ注文仕立紳士用 18.00

寸法鯨尺 28 29 30の三種

實用ラシヤオーバー

實用ラシヤオーバー
日本毛織特製 厚地メルトン縞黑茶朱子裏付
(506) 片前型 6.30
寸法鯨尺 28 29 30の三種
(507) 兩前型 6.80
寸法鯨尺 29 30 31の三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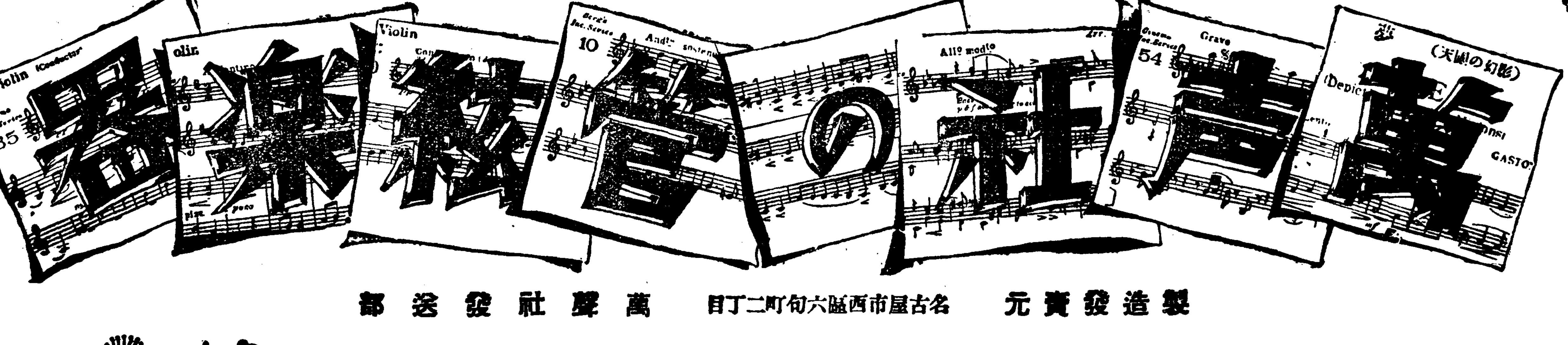
ミリオンボイス
近代若人に捧げる此の名器

절울이에게밧치는이

內地鮮滿有名店에잇습니다

カタログ進呈

特約店募集



製造發賣元 名古屋市西區六句町二丁目 萬聲社發送部

MANSEISHA Million Voice

"MILLION VOICE" MUSICAL INSTRUMENTS

內外經濟動向 (二)

朝鮮銀行總裁 加藤敬三郎

日本

經上 世界各國間에있어서 日本經濟界는 比較的 順調한發展을繼續하야 國力의 伸張이顯著하다 特히 各國의貿易은 萎縮되고잇슴에도不拘하고 日本의對外貿易은 昨年十一月까지 四十九億二千四百萬圓을算하야 前年에比하면 一七%의增加 大戰後未曾有의額에達하여 貿易尻는 一千四百萬圓의 出超로서 前年同期間의九千五百萬圓의 入超에比하야 好轉되엇다 貿易外收支의 好調와相俟하여 國際收支의 顯著한改善을보앗다 이는日本生産力의 充實을 말하는것으로 經濟的地位의 向上은 … 그리고 農村經濟가 漸次好轉하야 從來多少 念慮되든 景氣의跛行性을解消하고 産業의全般에 亘하야 好況을招來하엿다 그原因은 農産物價格의 昂騰에基因하야 … 一方事業界에잇서는 紡績業、洋灰業의 操短緩和 人絹業의操短開始와가티 二三停頓傾向에잇다는것이잇스나 此等事業은 操短反面에 生産設備의擴張이 … 아직根本的으로 惡化를보지안흘뿐 輸出及除事工業은 依然活況을呈하야 生産高增加를보앗다 特히 注視할것은 新興工業의 勃興에依하야 産業構成이 實的으로向上되고 貿易內容을改善하야 重工業品의輸出 化學品의輸入減을보앗는데 이는 日本經濟의 將來를보에어서 看過하지못할 好材料이다 如斯히産業界의好轉에 對應하야 諸取引의 增進도보앗다 金融狀勢는 近來稀有의激增으로 物價의昂騰과共히 商業界는活氣를띄우고잇다 金融界는 財政投資를反映하야 普通銀行의 預金의貸出에對한超過額은 三十六億圓이다 前年同月末에比하야 四億三千餘萬圓의增加이다 公社債株式拂込金은 十月末까지累計二十九億九千餘萬圓이나 이를 前年에對比하면 約十億圓의減少를示하야 資金移動은 얼마不活潑하엿겟스나 이는地方債、社債의 低利借換이 一段落을告한結果로서 金融基調의變化를 意味하는것은아니다 다음 本年度豫算은 昨年度에比하야 八千二百萬圓增의 二十二億七千一百萬圓으로決定되바 昨年度에比하면 自然增收 八千三百萬圓의豫想에對하야 補塡公債 七千萬圓의減少이것이特色이어서 一面財界의 好勢가持續되리라고 볼수잇다 … 要컨대 日本經濟는 … 十一月에 十億八千六百餘萬圓에 達하야 … (續)

朝鮮

의經濟狀態를 보면 一般産業의 振興이 顯著하고 景氣의 好轉이 特히눈에띄운다 … (以下[illegible])

昨年朝鮮貿易額 十二億二千萬圓

前年보다二億二千萬圓의激增

入超過는高記錄突破

昨年中 朝鮮貿易額은 輸移出이 五億五千七十八萬六千圓 輸移入이 六億五千九百二十六萬七千圓 合計十二億一千百五萬三千圓이다 이것을 前年에比하야 輸移出이 一割八分强 即八千五百四十一萬八千圓 輸移入이約二割七分 即一億四千十一萬七千圓 計約二割三分即二億一千五百五十三萬五千圓의 增加를 示하야 過去의朝鮮貿易額의 最高記錄인昭和九年의 九億八千四百萬圓을突破하야 昨年은十二億一千萬圓을 突破한바 그反面 輸移入超過는一億八百四十八萬一千圓에達하야 前年에比較하면 十割强 即五千四百六十九萬九千圓의 增加이다 이에對한 總督府發表의數字는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圓)

◇貿易總額

	昨年	再昨年
輸移出	[illegible]	[illegible]
輸移入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輸移入超過	[illegible]	[illegible]

【備考】過去의朝鮮貿易總額最高記錄은 昨昭和九年의九億八千四百萬圓이엇다 今年은그記錄을突破하야 十二億一千萬圓에 達하엿다

◇對外貿易 (以下單位千圓)

	昨年	再昨年
輸出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輸入超過	[illegible]	[illegible]

◇移出入貿易

	昨年	再昨年
移出	[illegible]	[illegible]
移入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移出入貿易額

十二月中增加

昨年十二月中 朝鮮의 移出入貿易額은 移出이 六千五百五十五萬圓移入이 四千七百八十六萬八千圓 合計가 一億一千三百四十一萬八千圓 出超一千七百六十八萬二千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移出八百五十六萬三千圓의 各其增加를 示한바 出超도 二百三十萬四千圓의增加를示하얏다 (以下單位千圓)

	本年	前年	增減
移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移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出入超過	出超 [illegible]	出超 [illegible]	[illegible]

米移出續減

◇……原因은産地高로

十二月의 朝鮮米輪移出은 産地高로 賣買가成立되기 어려움으로 輪移出額은 總計百二十九萬三千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約九萬石의 減退를 示하고 가리輪移入도 激減하얏스며 粟輪入도 激減하얏다 即 如左하다 (以下單位石)

▲米輪移出高

	今年	前年
十二月中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米輪移入高

	今年	前年
十二月中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粟輪移入高

	今年	前年
十二月中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國鐵運輸收入

昨年보다增加

【東京電話電通】新春을 마지하고 國鐵運輸收入은 好況으로 因하야 前年에 比較하면 黑字를 보엿다 即 三日間의 旅客輸入은 百七十六萬七千三百十五圓六十四錢으로 前期보다 二十二萬圓이 增加하엿는데 이것은 公表

米生産費 廿五圓臺?

十五日委員會附議

十年産外地米生産費協議會는 來十五日부터 農林省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고 總督府農林局으로부터는 矢島農林局長、山澤農産課長、石塚技師의 三氏가 十一日頃渡東하기로되엇다 今番의 外地米生産費調査會의 解散에依하야 政黨關係等의 介入을 避하고 農林、拓務、朝鮮、臺灣의 兩外地當局이 愼重히 事務的協議를하는것으로 右는 米穀自治管理施行의 基礎가되는것이다

그리고 十年産朝鮮米生産費는 目下集計中인바 今年의 生産費는 豐作으로 前年에比하야 相對的으로 低下하야 大體二十五圓臺로 될模樣이다

* * *

朝銀券漸縮少

年末億二千萬圓

一月四日繰越의 朝鮮銀行券發行高는 昨年末의 二億二千七十七萬七千圓으로 最高 十二月二十四日의 二億二千九百八十六萬五千圓에서 約九萬圓의 縮少를 보히엿다

日銀의公債賣行

그리만치안을모양

【東京電話電通】新春金融의 緩漫과함께 昨年十二月以來 顯著히 減退를 示한 日銀手持公債의 賣行은 다시 旺盛하야저 今月은 相當히 多額이 賣却되리라고 … 公債의 買入을 그만둘 形勢도 보임으로 舊正月까지에는 四日의 情勢를 基礎로 豫期되든 程度의 日銀所持公債가 賣却되리라고 보이고잇다

그리고 昨年은 一月中에 米券六千五百萬圓四分利債八千五百萬圓、合計一億五千萬圓의 公債가 賣却되엇다

昨年末 預金은 四千三百七十一萬四千圓으로前月末보다 末百三十七萬八千圓前年度보다 四百二十五萬圓의增加이엇는데 그種類別은 다음과 갓다 (以下單位千圓)

普通貯金 五、一四七 特約貯金 七、三八五 据置貯金 六〇一六 殖産積金 一二八九九 入定期預金 一、七一五 別段預金 三五三 合計四三、七一四

銀行會社

配當內定

株主總會時日

▲朝銀四分=期末 數字는 各支店報告未着으로 不明하나 預金貸出이모두 增加하고 定期總會는 二月十二、三日頃 열릴터인데 配當은前期와 가티 四分据置로內定

▲殖銀九分=下期 純益金은 百七十六萬七千三百十五圓六十四錢으로 前期보다 二十二萬圓이 增加하엿는데 이것은 公表

▲商銀三分=期末預金에는 四千五百九十三萬九千五百五十八圓으로 前年同期보다 八百三十五萬圓增加、預金은 五千六百三千三百七十八圓으로 前年同期보다 五百七十萬圓의 激增인데 同銀行은 利益의 大部分을 諸償却、內部保留에 充當하고 利益은 十六萬九千六百二十二圓(前期보다 六千圓增)을 公表하엿는데 總會는 大體 來廿二日 열

利益으로 總利益에는 預金貸出의 增加、不動産의値等으로 未會有의 數字를 示한것이돗하며 總會는 二月 十五日頃 配當은 九分据置로 內定

▲海東四分=總會는 卄五日 열고 決算案을 附議할터인데 今期利益金은 二萬二千九十六圓八十二錢으로 前期와 大略 同樣八千圓의 償却을하야 配當은 前期四分으로 据置를 內定

▲東銀三分=期末預金은 一千五百九十七萬五千圓으로 前年同期보다 約三百萬圓의 增加、貸出은 二千五百五千圓으로 前年同期보다 約百萬圓의 增加로그 利益金은 二十萬圓內外에 達하엿는데 十二萬圓의 償却을한結果

▲漢城三分=期末預金은 二千七百二十二萬三千圓으로 前期보다 一百八十五萬圓增加、貸出은 三千四百萬二千圓으로 前期보다 五百七十四萬六千圓의增加로 利益은 八萬五千六百十四圓을 公表하고 前期보다 一千圓의增加인데 總會는 二十五日頃에열豫定으로 그配當은 三分据置로內定

公表하엿스나 그配當은 三分据置로 內定하고 今六日 重役會를열고 總會期日을決定

▲貯銀八分=期末 預金은 七十一萬四千圓으로 償千九百五十二萬五千圓의 四千

▲京電一割=京城電氣會社에서는 今月廿七日 午前十時부터 東京丸內 工業俱樂部에서 定期總會를열고 下半期決算案을 附議할터인데 下半期業績은 電力料金의 値下로因한 減收가 短期間에 끗남으로 營業收益은 前期와 거의 큰差가업고 配當一割据置를 維持할모양이라고

帳末을 示한바 純益은 二十三萬七千二百十三圓八十七錢으로前期보다 六萬一千百圓의 增加이다 配當은前期와가티 八分据置로 內定하고 總會는 二十五日頃 열豫定이라고

京仁트럭創立

一日부터開業

京仁트럭合同會社는 지난十二月卄日 當局으로부터 許可指令이잇서 곳 登記를 끗내이고 資本金卄五萬圓의 京仁트럭株式會社로서 一月一日부터 營業을開始키로되바 旣報함과가티 本社를 京城에 營業所를 仁川에두고 水原에는 當分間 代理店을두기로되바 그重役은 다음과갓다

▲專務取締役吉田幹五右衛門▲取締役見目德太、森秀雄、小松寬美、竹井三郎、宮本齊吉、谷延二 ▲監査役平井秀雄、柳樂達見 ▲支配人中村巖 ▲仁川營業所長科田玉三郎

水力電氣調査費

四十萬圓을承認

遞信局의 水力電氣調査費는 昭和十一年度부터 四個年 繼續으로 …

中國銀行에

所持銀引渡

上海獨逸和蘭 等各銀行

【上海六日發電通】 舊臘孔祥熙氏는 當地各外國銀行에 對하야압호로 一個年 年利五分을 붓치는 條件으로(或은二年後는 六分五厘의 프레미엄을 支拂이라고한다) 所持銀을 引渡하기를要請하엿슴에 對하야 獨逸和蘭系銀行은 이에 應키로 決定하고 이미 引渡를 끗냇다고 하는데 나쇼날씨틔銀行도 六日 그所持銀二百五十萬元을 中央銀行에 引渡하야 中國紙幣와 交換키로되엇다고 傳한다 이박게 英國系의 샤타-드銀行도 近日中 引渡키로 決定하엿슴으로 남은것은 日本側各銀行과 香上銀行及스테이르나쇼날銀行뿐이라고한다

示하엿는데 이것은 年末資金需要의一段落과 滿洲의 朝銀券撤收가 原因된것으로 一月에 드러서 압흐로 가튼理由에 依하야 다시 縮少케될것이라고한다

▲貯銀預金積金高=貯蓄銀行昨年度末預金、積金現在高

라고 豫想되고잇는데 最近 各銀行의 所持資金運用의 態度로볼지라도 舊正月前은 豫期되는程度의 賣却이잇지안흘것을 豫想되고잇다 即 昨年來 平穩越年한 後의 金融市場은 四日 벌서 거이 平常化하야 六日에는 短資翌日拂日步는 四日의 高價

商況 【六日】

株式 漸落步調

不勢

前場續崩 休日을지난今前場은 米棉低、綿絲低、스틜株低等이오 鐘新의落潮沿로 當地도 諸株一齊續落하야 東新百六十四圓三十錢 大新九十二圓五十錢、朝新三十三圓十錢에까지 떠러젓다 가 結局再昨前引에比하야 朝新二十錢低인 三十圓四十錢、大新五十錢低인 九十二圓九十錢 東新一圓五十錢低인百六十四圓六十錢、日産七十錢高인 七十三圓二十錢에 各大引이고 日産新二十錢、一圓三十錢이잇섯다

後場區區 後場은 東新百六十四圓四十錢、日産 七十三圓七十錢 大新九十二圓六十錢、朝新三十圓五十錢에 區區寄後反高로 大引

日産은超然强

日産은 減配觀來 賣餘地가업슬程度로 賣切되엇더만큼 年初主力株不勢에 不拘코 日産은 超然强의 步調로서 今前場도 日産七十錢高인 四十三圓二十錢에 獨高이엇섯다

實物株前場取引

▲金剛電鐵新 五三〇 ▲에라파이新 … ▲日本窒素 …▲寶水港新 … ▲大同電力 … ▲同新二一 … ▲朝鮮製鍊 … ▲北鮮製紙 … ▲朝鮮石油 … (取引高)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電通】環境의不良으로 人氣重하고 各債共히高下區區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五四五 佛貨四分利 一八七〇〇

米期 穩健裡에 强調

前場反撥 再昨前場 阪地三十一圓六十四錢止와 共히二十九圓四十三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一休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六十二錢인 二丁反落을 報하고 二十九圓四十四錢인 一丁反高로 場을始한後 阪地五十一錢까지 下押하엿다가 三十一錢으로 反落할을따아 此際에 阪地七十錢의 突高로 止場할을 伴하야 九節五十五錢으로 五三錢에 止場하엿다

後場揉合 後場은 二十九圓五十六錢에 三丁高로 始場後三節四十八錢에 下押하얏다가 五節五十錢으로 五十二錢에 止場하다

新春의第一步

十餘丁의騰落

新甫 三月限은 二十七丁上輔인 二十九圓四十二錢에 發會되어 七錢까지 小戾하더니 一休今朝에 入하야는 發會價에서 十

鍾新崩落

百五十圓割

今朝落地는 鍾新의 賣買가여섯스나 大阪留期는 百五十圓割의 續暴落이엇다

鍾新이 暴落한 大阪留期는 … 鍾新이 모다 暴騰에暴騰을 거듭하고 鍾新은 二百三十五圓에까지 沸騰되엇섯던데 總業界의 大勢는 生産過剩의 電機의 크게擴張을 擴張하야도 需給齟齬이 안되어 採算이 안되겠는 根本事情이 잇슴으로 大阪屋을 筆頭로한 軟派의 雪崩的賣叫로 今前場은 鐘新百五十圓割門의 暴落을보인것이다

新春戰線區區

東新追伴續落

新春劈頭부터 紡績株崩에依하야 戰端이開始되바 東新도 鍾新暴落에 追隨하야 大阪서는五人組의 實物로삭구떠러저서 今前場은 東京、大阪、當地共히東新百六十四圓臺로서 續落不勢이엇다 그러나 東京東新短期取組는 아즉도 四十二萬臺로서 整理가 되어서야할것인데 新春戰線이區區不一하야 紡績株不勢인 反面 株式樂觀、電力株等에 投資側買進等業株、의 積極的商狀임으로 이株算的投資進行의 嚴選이 繼續되는限 東新等의 投機株는 整理를繼行케될것으로 보는便이잇섯다。

米實收減退說

果然이면反撥

昭和十年度 産米로의 日本內地米 第一回豫想은 六千五十餘萬石으로 第二回豫想은 三百四十餘萬石의 激減인 五千七百五萬餘石이어섯다 이와가티 大減收하기도難할것으로 當分此邊에서往來하지안흘가한다

이엇슴에도 不拘하고 又復實收減收說이 今幕로 米價는 到底히 低落키 難할모양이다 果然 減收의 程度가 何如할지 此가 往日與인데 某通信의 傳하는바에 依하면 第二回보다 百萬石의 減收는 無難할이라고한다 此가 事實化하는 때는 米價는 此邊에서 騰騰할것이 아니오 적어도 昨年高値보다 二百丁程度의 高價는 無難할것으로 觀測하는것이 妥當하지안흘가한다

株 市場六感

初立會가 失望投로 떠러지 더니 休日을지난今前場도 紡績株의頽勢不止로 鍾新百五十圓關門의暴落▲東新도 追伴續落 日産은더떠러질것이업서超然强 ▲山一의 買思惑이 失敗에歸하느냐? 다시 勇氣를 내게되느냐? 斷言키는어려우나 紡績界全般이 生産過剩에 을고잇는만큼 鍾新의拂込이急遽斷行되지안는다면 머리를들기는드지안흘가?▲東新도 依然大取組이라 財界의調不變、金融緩慢만 내세우고 버틔기가 힘들게되엇고 鍾新에追伴하야 정말整理低를 하는모양▲事業株의 投資的嚴選時代이니만치 投機株의 無理한大市勢期待는 모름지이解消가若何?

米 新春의 米價는軟弱한듯하고도 底堅味가多한 모양이다 今朝九圓三十一錢의 低價와五十五錢의 高價는 客臘以來의 처음보는 壯觀▲阪地의 五十一錢으로부터 七十錢까지의 反撥은 그原因을 아즉알수업스나 大體春高豫想의 買物이 轟奏하는모양▲農家의 態度는 日本內地及 朝鮮을不問하고 賣惜하는모양이니 平均賣의 方針을 取하는모양이나 떠러지지못할것은事實▲그러고 日本內地米의 實收는 第二回豫想보다도 百萬石程度의 減收說이 多한今春間의 瓦落은 絶對難望▲그러나 政府가 繼續買上을 하지안는때는 農家의 狼狽的賣物이 現出할지도 未知이며 딸아서 一朝賣勢威壓의 反落을 告하지 안흘가한 弱氣說도 多하다 果如何?

堂島前場賣買

◆賣方=株式側 中國側 東京側 乘換中東側田中貞 ◆買方=地場小口 目前側 朝鮮側 西側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中限・先限 [illegible])

賣買高의受賞

一等은金谷店

昭和十年度朝取米豆部의 總賣買高는 三千五百五十二萬一千三百石인데 最中金谷商店이第一位를占하엿스며 受賞者를細別하면左記와如하다

一等	金谷	七〇二二、一〇〇石
二等	[illegible]	四三四七、九〇〇石
三等	[illegible]	三五八五、三〇〇石
四等	[illegible]	三三七七、八〇〇石
五等	[illegible]	三三四二、二〇〇石
次點	[illegible]	一八二一、八〇〇石

各地正米

京城不冴 當用の需買가 散見되는程度로 市況閑散裡에 終始이엇다

仁川弱含 氣配賣하야 賣物이 比較的적으나 買正關係의 換並買物을 豫想하고 市勢는大概弱含하야 銀坊主 三等二十九圓十錢 四等二十八圓八十錢 多摩錦三等二十九圓四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穀良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錢

釜山小弱 休日後인 今朝는 産地賣物이적고 市場出廻四千叺程度의 僅少이다 定期의 軟調를 드고 市況이小弱하야 角フ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〇四錢

大邱同調 産地賣惜 人氣는 濃厚이나 入荷不振으로 買氣不進하고 市況이 活氣薄으로 不變인 角フ三等二十八圓五十錢 四等二十八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五十錢

群山保合 賣需側의 補充賣가 散見됨으로 氣乘薄場面을 呈하고 一般이 形勢傍觀의 狀態로 保合인 菱フ三等二十八圓九十五錢 四等二十八圓八十錢 一等白米十四圓丁

木浦焦付 産地는 依然高價 待로 頑强이나 期米保合과 日本內地不買進으로 買氣不添하야 焦付狀態인 丸木三等二十九圓十錢 四等二十八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金融 六日

◆海外經濟◆ ◆新鮮銀行券◆ ◆日本銀行勢◆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illegible]

米穀 六日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六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지카고期米◆ ◆綿油沖價◆ ◆鰯搾粕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六日

◆朝取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引◆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六日

◆朝取期米賣買高◆ ◆朝取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引◆ ◆大阪市中在米高◆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商品 六日

◆大阪綿糸◆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棉花◆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仁川 朝米 福 吉村取引店

朝鮮取引所證券取引員 이야마證券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二ノ一 日生ビル一・二號室 電話本局(代表)二三四四七 二三四四八 二〇九〇 業界日報案內아進呈

玉蜀黍購入 五圓四拾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産業組合平北鹽浸産業組合經由多量買入합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産工業株式會社

金.銀.白金 徠 京城德力 地方注文代金引換及交換鑑別 金先料送要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京城府明治町